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512-01

농림축산식품부
66대 정황근 장관
연설문집 2

2022.5.11.~2023.12.28.

농림축산식품부
66대 정황근 장관 연설문집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66대 정황근 장관
연설문집 2**



농림축산식품부

CONTENTS

- 04** 대관령부터 가나까지, ————— 6
 낮밤을 가리지 않은 소통
 페이스북 모음
- 05** 쉬 없이 달려온 600일 ————— 304
 현장 축사 모음

농림축산식품부
**66대 정황근 장관
연설문집 2**



농림축산식품부




WFP

UNH
Humanitarian
Affairs

PAM

AM



제4장. 페이스북 모임
대관령부터 가나까지,
낮밤을 가리지 않은 소통



정황근

2022년 5월 11일

오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 직원과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 저의 농정 철학과 향후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농업인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농업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농식품부 전 직원이 긍정과 열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2022년 5월 16일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형태로 취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축하드립니다. 농민을 위한, 농촌을 위한 진정한 농업정책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기쁜이유는 아마도 농업현장에 계실때 누구보다 농업인들과 소통
하려는 장관님이 생각이 나서입니다 뒤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5월 16일

상임위가 있어서 국회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피기 시작한 아카시아
꽃이 세종에 오는 길, 도처에 만발했네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
이 아카시아인데 금년에는 꿀 대풍을 기대해봅니다. 3년간 제대로 꿀을 못따셨다는
양봉인들의 말씀에 마음아팠는데 연초의 꿀벌사라짐 현상을 극복하고 높은 소득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2년 5월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세종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기념식 내내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묘한 심정이었지요. 사실 42년이 지나도록 5.18민주묘지를 참배하지 못했고 왜곡된 인식이랄까 참배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묘소주변을 계속 날아다니는 노랑나비 한 마리와 묘소마다 함께 하고 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아버님과 이 곳에 계신 5.18영령들이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오버랩 되더군요.
 오늘의 참배 계기를 만들어 주신 대통령님께서서 여러 차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셨는데 오늘의 품격있는 기념식을 계기로 5.18의 희생과 가치를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느끼고 서로 보듬고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념식 동안 느꼈던 부끄러움과 영령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또 마음속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저도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5.18민주영령과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모아 위로를 드립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5월 23일

<밀가루, 식용유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식품·외식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밀가루와 식용유의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공식품, 외식분야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뜰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 식생활에 밀접한 밀가루와 식용유의 공급불안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알기에, 제분업계, 식용유업계 관계자분들께 원활한 공급을 당부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다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되는 전체 곡물 중 20%만이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나머지 80% 정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연간 200만톤 이상을 소비하는 밀가루를 가루쌀용 쌀로 대체한다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식량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 식용유 공급사들은 현재 식용유 재고량이 2~4개월분 정도로 안정적이고, 식용유와 원료 수입에도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소비심리 불안에 따른 일부 가수오만 진정되면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2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과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정적 원료구매를 위한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며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식품 원료 공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림으로써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학동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해주신 상가번영회 정 지연 회장님과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참쌀가루를 10분의 1정도로 비율로 핫도그를 만든다는 청년사장님의 손을 저도 모르게 몇 번이고 잡아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은 미소를 보며 오늘 저도 훈훈한 마음을 전달받아 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민하기 위해 긴밀한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5월 25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축산물 수급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특히 삼겹살 등 축산물은 국민이 즐겨드시는 품목입니다. 비용 상승 원인을 절감하여 어떻게하면 국민들이 덜 오른 가격으로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은 평년보다 약 5%가 많은 630여만 마리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불안한 국제경제 상황에 사료 가격이 상승하였고 인력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사료구매자금을 대폭 늘려 올해 총 1조 5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것이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소통의 자리에 함께해주신 안성 도드람 엘피씨와 사료업계, 가공업계와 중도매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과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뜻을 모으면 지금의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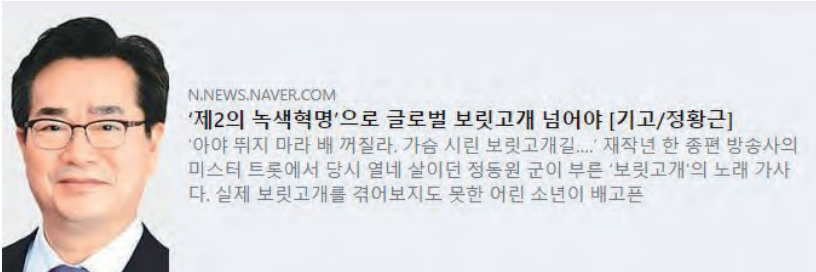
정황근

2022년 5월 26일

식량안보를 지키고 쌀 수급 과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2의 녹색혁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농림 관계자 모두 전력을 다해 '글로벌 보릿고개'를 힘차게 뛰어넘을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0418>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식량안보가 빅이슈인 시기에 시의적절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정황근

2022년 5월 26일

오늘 강원도 홍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기에 해당농장에 대한 사육돼지를 살처분 하는 한편, 홍천군 인접지역과 관련 도축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방금전에 ASF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관계자는 불필요한 외부활동 자제, 철저한 농장 차단 방역을 실시해 주시고 일반국민 여러분께서도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등에 입산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5월 30일

< 주요 농축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최근 물가 상승으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오늘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판매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께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했다면서 가격 부담만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3통에 13,500원이었던 배추가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9,5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한 농축산물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소비자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와 여야가 한마음으로 농업인을 도와드리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와 축산농가에도 생산비용 부담을 줄여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함께 참석한 농협 회장님께서도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이 앞장서서 추석때까지 전국의 2,215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특판행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나오는 길에 '우리 농축산물 살맛나게'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살맛이 나시게끔 물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5월 3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날로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ASF 방역에 애쓰시는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 방역 관계자분들을 만나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하셨기에 방역 현장에 계신분들께 감사 인사와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이천은 최근 ASF가 발생한 흥천과 인접할 뿐만 아니라 양돈밀집지역으로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곳입니다. 실제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교대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을텐데도 고압세척 후 소독필증을 받기까지 철저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경각심이 떨어져 이번 흥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씻기와 강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농장 단위에서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방역 요령 등 관련 교육도 한층 강화해야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맡은 업무를 120% 해낸다는 각오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6월 2일

37개 농업인 단체장님들께 새정부 농정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자리를 만들어 농업인 눈높이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 현안과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농업인 단체장님과 농업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2년 6월 3일

농번기에 지속되는 가뭄으로 애타는 농업인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내기는 72.4%가 완료되었으나 발작물은 가뭄에 취약합니다. 오늘 아산시 농업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농어촌공사에 긴급 급수 등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농산물 수급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양파 수확 농가에서는 일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바쁘게 돌아가는 농업 현장에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논처럼 발농사도 기계화가 진전되면 일손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지 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6월 9일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기 위해, 가공 전용 품종인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아도 빵을 수 있어, 가공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수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https://youtu.be/L3xSwX95RRU>



YOUTUBE.COM

가루쌀(분질미)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 정황근 장관 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8일 「가루쌀(분질미)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가루쌀 품종이 확대 보급 재배되어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한다면 밀수입 물량도 줄이고 밥쌀용 쌀 재배면적도 줄여 쌀 과잉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관님 정책이 성공되기를 응원합니다!



정황근

2022년 6월 9일

오늘 11개 소비자단체장님들과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드렸고, 소비자단체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6월 10일

오늘 저는 하동지역 청년경영인들을 만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인근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고, 농업에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니 도라지, 배, 매실 등이 껍질 하나 허투루 버려지는 것이 없을만큼 역동적인 농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열려서 유통기한을 1년으로 늘려 수출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동안 제가 그려온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모습입니다. 오는 길에 청년경영인들께 농식품부 직원 대상 강의로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현장의 젊은 인재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대형유통사 대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

일 자 2022. 6. 14.(화) 참석 E-mart LOTTE Mart 하나로마트 Homeplus GS 리타입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2022년 6월 14일

최근 소비자물가 지수가 14년 만에 5%대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유통사에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0%) 추가 적용, 단순가공식품품 부가가치세(10%) 면제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즉각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할인행사 실시 등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부는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6월 14일

오늘 SK인천석유화학과 농식품부, 농협중앙회가 함께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제어와 환경제어기술, 에너지화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한다면, 축산농장의 스마트화와 가축분뇨 악취 문제를 완화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우리 축산업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축산업은 우리 국민의 기초식량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6월 17일

청년농업인들도 식량작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북 김제시에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밀과 콩을 재배하고 있는 석산영농조합법인을 들렸습니다. 이 곳 청년농업인들은 가축분뇨 퇴비를 토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콩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고,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거두절미(巨豆絶米)”(콩을 키우고 쌀은 줄인다는 의미)라는 가치를 걸고 콩과 밀을 이모작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350개 농가 18개 영농법인이 다같이 모여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규모화가 되기까지 어떤 강제나 규칙도 없었다고 합니다. 노지작물을 기르는 논밭을 농업인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싶다는 청년대표의 포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식량생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농업인들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 농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여러분 100% 응원합니다!



정황근

2022년 6월 22일

오늘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주와 남부지역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가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호우와 태풍, 폭염 등에 적극 대비하여 인명과 시설,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농업인들께서도 여름철 폭염이나 집중호우 시 안전관리요령을 숙지하시고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황근

2022년 6월 23일

오늘 양파 최대 주산지인 전남 무안을 방문하여 양파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양파 가격은 인건비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 중 하나인데, 이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양파 수확 기계화가 성과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수확기 임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6월 27일부터 비축물량 중 일부를 조기 방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까지 약 2만 톤의 양파를 비축하여 향후 양파 수급이 원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매입한 20kg 단위 포장 그대로 가락시장에 상장해 다시 소포장 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등의 애로 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바로 검토해 조치하겠습니다.

양파는 쌀, 밀, 돼지고기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수확의 기계화와 온라인 판매, 제도 개선 등 관련업계와 정부가 모두 똘똘 뭉쳐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



정황근

2022년 6월 27일

오늘은 경북 상주시 정양마을을 찾아 마을주민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마을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농촌의 문화와 일자리를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기가 태어날 정도로 귀농·귀촌 인기지역이라고 합니다.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는 마을의 공동철학이 자리매김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젊은 마을 이장님의 말씀에서, 포도송이 알처럼 사람들이 모여 향긋한 포도향을 머금은 마을의 역사와 정취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하기 좋은 정책들과 환경을 만들어 주실거라 응원합니다!



와~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미래와 희망입니다.



정황근

2022년 6월 30일

오늘은 식품기술(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학계, 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푸드테크는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이라 알고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식품업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푸드테크는 우리의 미래먹거리입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유망스타트업을 육성하고 R&D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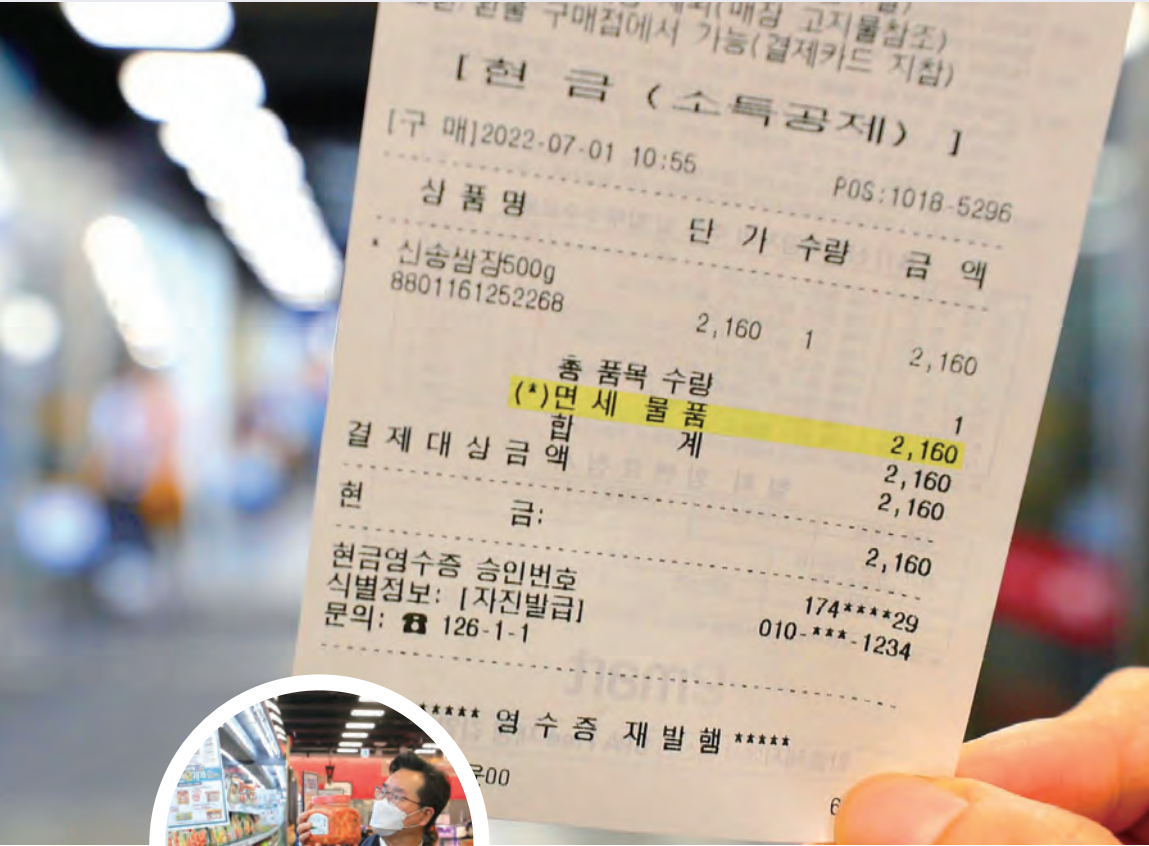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아자~~!



정향근 2022년 7월 1일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대형마트를 꼼꼼히 둘러보며 정부의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가격이 내렸는지 점검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되고 있으며, 오늘부터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 10%를 뺀 면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자체적으로도 할인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비축과 수입 등 적시적소에 맞는 협력과 대응으로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7월 2일

지난 6월 17일 만났던, 식량작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청년 농업인들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청년농업인들을 응원합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농업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일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황근

2022년 7월 6일

오늘 3년 반만에 농식품부 직원 정례 조회를 가졌습니다. 농업 생산부터 최첨단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까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농산업을 이끌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하동 방문시에 약속했던 대로, 청년 농업경영인께서 바쁜 시간 쪼개서 올라와 전 직원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가고, 같이 가면 멀리간다”며 지역 농업인들과 청년경영인들의 콜라보를 통한 선도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농업·농촌 모두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7월 11일

오늘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사료자금을 지원하고, 추석 성수기에 도축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적극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7월 13일

오늘 평창의 배추밭과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를 찾아 여름철 배추 수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배추는 양으로만 보면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전 국민이 드실 배추가 이곳 강원도에서만 재배되기에 철저한 수급관리가 필요합니다. 강원지역 농협조합장님들께서 기술 지원과 관측의 중요성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서로 지혜를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고랭지 배추 재배농지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전략 차원에서 고랭지 농지 추가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농업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관계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7월 14일

전 세계적 식량 위기에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과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오늘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1984년까지 식량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었지만, 이제는 쌀을 원조하는 공여국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품질도 좋아서 현지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7월 15일

오늘 20개 지자체 시장·군수님들을 모시고 농촌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정부에서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방침을 만들면, 그 방향에 맞게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딜가봐도 우리 대한민국 농촌에 견줄만한 아름다움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로 농촌생활권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각 시·군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7월 18일

오늘 3년 반만에 농식품부 직원 정례 조회를 가졌습니다. 농업 생산부터 최첨단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까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농산업을 이끌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하동 방문시에 약속했던 대로, 청년 농업경영인께서 바쁜 시간 쪼개서 올라와 전 직원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혼자 가면 빠리가고, 같이 가면 멀리간다”며 지역 농업인들과 청년경영인들의 콜라보를 통한 선도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농업·농촌 모두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안정적 곡물 공급망 확보 통한 식량안보 민관협력

posco
INTERNATIONAL

2022. 7. 19.(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2022년 7월 19일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곡물 수급 여건이 불안해지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포스코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보 대표이사 및 임원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해외 곡물 도입의 핵심 유통 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문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식품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7월 20일

오늘 청년농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운영하는 충남 보령의 스마트팜을 방문하고, 현장의 어려움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이는 아침에 손가락만한 크기가 저녁때가 되면 수확을 해야 할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수확철에 옆에 서있어야 할 정도로 부지런해야 재배할 수 있는 오이가 ICT 기술을 접목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ICT에 다양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고 농업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농업 진입 초기소득에 대한 불안을 덜어드리고, 농지와 자금 지원, 교육 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과 다양한 자리를 통해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향근

2022년 7월 28일

영농철 농민들의 갈증과 허기를 달래주던 막걸리가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의 '21년 해외 수출액이 전년대비 29% 증가한 24백만달러에 달하고, 지난달 기준으로도 전년 동월 대비 7% 이상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주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주 관련 법 개정도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늘 관련 업계분들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분들께 해외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당부드렸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농식품부의 지원방안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주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세계로 세계로 우리 전통주와 막걸리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쌀 소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해외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상품개발을 다양화해도 좋을듯 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정황근

2022년 7월 29일

‘혁신 이어달리기’를 아시나요.

‘혁신 이어달리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추진 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새 정부 들어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가운데 농식품부가 첫 주자로 뛰게 돼 영광스러웠습니다.

이 행사에서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답을 찾다’ 라는 주제에 맞춰 우리부의 혁신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또 물가·과학·혁신을 주제로 소비자, 농대학생,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진행했는데,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현장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책고객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꾸준한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3일

기후위기, 농촌 일손부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지금, 스마트팜 기술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한국형 비닐온실을 중동의 해수담수화 사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출할 시대도 멀지않았습니다.

업계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미래를 위한 농업 혁신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스마트팜 수출 산업화를 위해 종합지원단을 구성하고, 농가와 상생 모델도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6일

오늘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곤충축제가 열리는 예천을 찾았습니다. 농식품부가 24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서 이곳에 곤충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낮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8일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강릉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당분간 중부와 경북북부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었습니다. 피해를 사전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농축산물을 비롯해 배수장과 저수지 등 농업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집중호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11일

어제 대통령님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핵심 과제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역시 장관님이시네요. 추진력도 좋으시고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많으시니 우리 농업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내실있는 멋진 정책으로 농업 농촌이 행복해지리라 확신합니다. 늘 현장에서 그 답을 찾으시며 현장을 중요시하시는 장관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11일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조속히 복구, 지원하고, 서민 생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11일

오늘 YTN에 출연해서 민생안정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대책과 식량 자급률 제고방안 등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youtu.be/n0SD-fx4TLg>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오늘 YTN 생방송 출연하셔서 장관님께서 펼치시는 주요 농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멋진 행보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12일

추석이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금번 폭우 피해상황과 대책, 그리고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 방안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추석에 서민들과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youtu.be/jjxor30hpkA>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 너무나 든든 합니다. 늘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14일

오늘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조생종 햇배인 '원황' 수확 농가와 배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작황이 최고로 좋고 맛도 품질도 아주 좋다는 농업인의 말씀에 안심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수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로 상심이 크신 충남 부여군의 두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유례가 없던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었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가급적 추석 전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협 손해보험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께서 이렇게 현장을 찾아 위로해 주셔서 피해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피해 농가분들 모두 힘 내시길 응원합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18일

오늘은 우리 주식인 '쌀의 날'입니다. 쌀의 소중함과 농업인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고 쌀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참 고마우신 농업인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대한민국 농업인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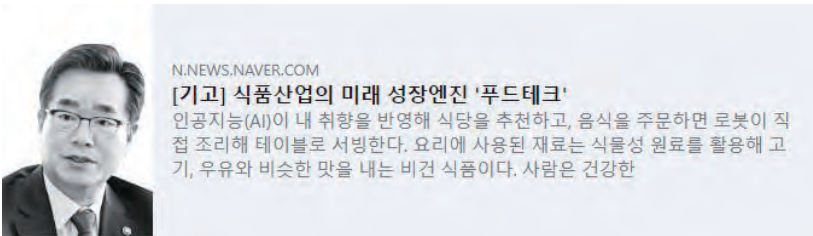


정황근

2022년 8월 18일

농축산물 생산단계의 스마트팜, 가공 분야로 융복합과 유통 단계의 온라인·비대면 유통플랫폼까지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푸드테크(Food + Technology)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첨단산업입니다.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8119?sid=110>



N.NEWS.NAVER.COM
[기고]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엔진 '푸드테크'
 인공지능(AI)이 내 취향을 반영해 식당을 추천하고,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직접 조리해 테이블로 서빙한다. 요리에 사용된 재료는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고기, 우유와 비슷한 맛을 내는 비건 식품이다. 사람은 건강한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스마트한 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가 새로운 농업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황근 장관님! 화이팅 하세요~~~



정황근

2022년 8월 19일

지난 5월 이후 85일 만에 강원도 양구군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양돈농가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ASF 바이러스 차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석을 3주 앞두고 있어 벌초 등으로 이동이 많은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장방문 자제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19일

오늘 SBS Biz에 출연하여 가루쌀 산업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스마트 농업과 청년농 육성 방안 등 새정부 출범 이후 농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youtu.be/iSWWczeBPDo>

YOUTUBE.COM

[오후초대석] 위기의 밥상물가...스마트팜으로 한국 농업의 미래 그린다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조달이 위...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장관님께서 펼치시는 윤석열정부의 스마트 농정 기대됩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22일

오늘부터 4일간 코로나 이전 상황과 같이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실사구시 차원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습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24일

오늘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참석하셔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만들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창농과 귀농에 도전한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하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음직한 스마트 농경,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농업·농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25일

오늘 충북 충주시 홍로 사과 생산 농가와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올해 사과 작황과 수급 상황이 양호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생산 농가,
유통센터 직원 모두 한상자라도 더 출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감
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26일

오늘은 우리부 신입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 '조금 손해보고 살자'는 이타적인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직원분들이 업무에 잘 적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될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멋집니다. 장관님. 신입직원분들 많은 힘이 되었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8월 29일

지난 금요일, 영상으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정책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친환경·저탄소 농업 정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태 지역 회원국들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8월 30일

우리 전통이 깃들어 있는 서울 북촌에 한식문화공간 '이음'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국'하면 K-pop 다음으로 '한식'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발효, 건강, 멋삼박자가 어우러진 우리 한식을 세계인들이 즐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푸드테크로 한식의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한식 세계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한식 세계화가 새로운 농축산물 시장개척의 로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일하시는 정황근 장관님 파이팅



정황근

2022년 8월 31일

오늘 친환경농업협회 회장단 및 시·도 회장님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보통 의지가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우리 농업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에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리를 통해 자주 뵈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9월 2일

예결위 시작 전입니다.

요즘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벼 재배 농업인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예결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표명하시네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단계별로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 공공비축미를 10만톤 늘려서 45만톤 수매계획을 2주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0.7%인 5,300ha가 감소하는 걸로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9월 중순경 농진청의 작황조사 결과가 나오면 금년 생산량을 추계해서 가급적 9월안에 격리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생각입니다.

태풍도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잘하셨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비용이 덜드는 방책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님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좋은 먹거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안은 17조 2,785억원으로 작년보다 4,018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인 내년 예산은 공익직불제 17-19 사각지대 해소, 비료·사료 가격 상승 부담 완화,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청년농 양성 등 지원을 통해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농업인 경영안정 및 시급한 농촌 민생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농업인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연일 고생하십니다.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정황근

2022년 9월 3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03년 우리에게 큰 피해를 끼쳤던 태풍 '매미'와 경로가 유사하고 크기와 강도가 더 강하다고 하니 걱정이 매우 큼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나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소속·산하기관은 물론 지역농협, 읍면을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마을 이장님들까지 모두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께서는 방송과 안전예방 문자·마을 안내방송에 귀기울여 주시고, 정부의 태풍 안내와 행동 요령을 적극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시설 파손, 농작물 침수와 낙과, 산사태 등 농업·농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4일

어제 세종에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님,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낙농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동의해 주셨고,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또 낙농제도 개편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면서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농업현장의 어려움 직접 청취하고 극복방안을 함께 모색하시는 장관님. 언제나 믿음직하고 장관님이 펼치는 농정에 신뢰합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4일

오늘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분들 모두 지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추석 대목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1.5배 이상 확대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최대 650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성수품에 대해 일반마트는 20%,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됩니다. 품질 차이가 없고 가격은 더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많이 해주시고, 상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5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태풍 시기, 경로, 강도 등 모든 면에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지자체 관계자께서 농업 수리시설, 산사태 우려지역, 농경지·축사, 가축 매몰지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또한,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농식품부 직원들에게 오늘 내일은 전원 민방위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빈틈없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농림 공직자 모두가 태풍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의 철저한 준비와 노심초사 열정으로 태풍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신 현장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 사이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태풍 상황을 지켜보다 오후에 현장 피해 상황과 긴급히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은 서둘러 물을 뺀 후 지자체 농협과 힘을 합쳐 소독 조치하고, 병해충 방제와 작물 회복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태풍피해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농업인께서 하루빨리 영농활동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고, 추석 명절을 앞둔 시기인 만큼 농축산물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모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조금이나마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7일

오늘 대통령님과 경북 경주 왕신저수지를 찾았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집중 호우 피해로 지난 9월 6일 저수지 제방 일부가 유실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당일에 주민분들이 긴급히 대피하시도록 조치했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저수지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복구를 마무리하고,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도 지원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9월 8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복구에 필요한 현장 인력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급히 여제와 오늘 이틀 동안 농식품부와 소속 산하기관, 농협 등 직원분들이 태풍 피해 농가 일손돕기를 다녀왔습니다.

강풍으로 떨어진 사과와 배를 줍고 농경지로 밀려온 토사와 쓰레기를 정리하느라 모든 분들이 구슬땀을 흘렸는데, 안타까움과 먹먹한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께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농촌 피해 현장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도록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9일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과 함께하는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태풍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민들의 식탁을 채워줄 먹거리를 생산하느라

땀 흘리신 농업인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축산물을 아끼고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농업인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추석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드림 -



정황근

2022년 9월 14일

흔히 규제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대못’이라고들 합니다.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발족했고, 마흔 번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187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중요도와 파급효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35개 규제 개혁과제를 확정지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스마트팜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청년농 신용보증 지원 강화, 반려동물 등록시 안면인식 방식 한시 적용 등 민간의 창의와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저 스스로 ‘그동안 왜 안 고치고 있었을까?’하는 과제들도 있었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 현장을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농업인분들과 기업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농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대못, 확실히 뽑아내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14일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 시장은 큰 성장세에 있고, 우수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8월 스마트팜 수출 기업 간담회를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부 차원의 애로 해소와 지원을 건의하셨고, 저도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9월 19일부터 농식품부와 농진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스마트팜산업협회 등 8개 기관이 힘을 합쳐 스마트팜 수출을 본격 지원합니다. 해외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수출 초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와 법률 상담 지원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항근

2022년 9월 15일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로 5년 만에 열리는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에 참석해서 139개 축협 조합장님들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20년 기준으로 전체 농림업 생산액 52조 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와 악취, 질병 등 해묵은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조사료 할당관세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축산 관계자분들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15일

땅끝마을 해남에서 열리는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걱정하고 계셔서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 쌀전업농 회원분들을 찾아봤습니다.

쌀은 주식이고, 쌀값은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10만 톤 늘려 45만 톤을 매입하고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예년보다 '더 빠르게' 쌀 수확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격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밀·콩·가루쌀 등 식량자급률을 높일 전략작물에 신규로 직불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떨어지지만 하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구조적인 쌀 수급 과잉 문제도 해결해 내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19일

오늘 새벽, 강원도 춘천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양구에서 발생 이후 1개월 만입니다.

우선,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의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9월 20일 2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아울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14개 시·군 모든 농장과 주변도로 집중소독 등 신속한 초동방역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축산농가와 서로 협력하여 ASF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와 관계자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20일

오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님을 만나 부임을 축하드리고, 양국 농업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후 대응과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서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미국 각지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것을 필두로 한류문화를 통한 양국간의 식문화 교류와 농산물 교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9월 22일

오늘 충남 부여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기 해결책으로 올해 처음 무주, 임실, 부여, 아산, 진안 5개 시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세도농협이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협약하여 45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받고,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체류하며 통역과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아 농업인분들과 계절근로자분들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현재 3개월 또는 5개월만 허용하는 것을 10개월로 확대 개선하기로 했고 법무부와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만간 구조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23일

코로나19 장기화, 전쟁과 재난 등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폭력 근절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의 하나로 오늘 외교부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동폭력근절(END Violence)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미래 주역이자 희망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폭력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챌린지 다음 참가자로 법무부 한동훈 장관님을 추천합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9월 25일

쌀값 하락에 농업인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정부는 오늘 고위당정협의 회에서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2022년 9월 27일

G20 농업장관회의의 참석 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와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주엘 브로노 미국 농무부 차관을 만나 양국간 농업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부산엑스포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면서 우리의 역량과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G20 농업장관회의의 계기
한-미 양자 면담 (9.27.)

- ✓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공급망을 위한 협력
- ✓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푸드테크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논의
-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
- ✓ 2030 부산엑스포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우리의 역량과 의지를 전달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2022년 9월 28일

오늘은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팬데믹 등 국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을 향한 G20 회원국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참가국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시스템 구축」세션에서는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디지털 혁신 촉진」 세션에서는 스마트팜의 고도화와 보급 확대,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와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9.28.)
대한민국 주요 농정방향 소개 및 국제 협력 강화, 공동의 노력 강조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식량 안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팜의 고도화와 보급 확대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2022년 9월 29일

어제 경기 김포,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오늘 총리님 주재로 ASF 방역상황 영상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 이후 3년 만의 발생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축산농가와 지자체 모두 '내 농장과 내 지역은 내가 지키다'는 자세로 집중 소독,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29일

지난 27일, 28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식량 안보와 스마트팜, 식품산업 육성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였고, 참여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기회였습니다.

미국·독일과 양자 면담을 통해 식량 공급망 안정화와 기후 변화 대응, 식품기술 관련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30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탄소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IFOAM)이 공동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제가 대독한 대통령의 축하 말씀처럼 “유기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9월 30일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과 예찰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과산군 양돈농가의 방역 추진 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 환경부, 지자체에서 방역에 애를 많이 써주고 계셨습니다. 취약지역에서 지자체와 농협·축협이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의 역할이 중요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렸습니다. 양돈농장 관계자분들께서도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방역기본준수, 농장 차단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5일

오늘 대통령님과 함께 경북 상주시의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주제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와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농업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내년도 농자재 구입 비용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농업직불제 예산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젊은 농부, 똑똑한 농업”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회의 슬로건처럼 청년농과 스마트농업이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6일

올해는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육종가분들의 노력으로 9,179개 품종을 등록하여 78개 회원국 중 8위로 도약했습니다.

오늘 기념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종자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감사인사와 격려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종자는 최첨단기술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흔히들 '농업의 반도체'라 부릅니다. 기후 변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고 종자산업을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수출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6일

대통령님께서서는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을 통해 ‘청년, 디지털전환, 농업경영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고생하시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해주셨고, 수확기 쌀 45만 톤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12일

오늘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 양돈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육류 소비는 돼지고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양돈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께서 건의해주신 각종 규제 개선과 정보통신기술 장비 보급 확대 등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른 축산단체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10월 12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원양에서 오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즉시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방역대 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과 소독 강화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리 발견되었고, 해외 발생도 많은 만큼 올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가금 농장에서는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나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13일

오늘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2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국제종자 박람회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 개발 연구와 종자 산업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올해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종자산업을 농업의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10월 13일

오늘 익산의 가루쌀 수확 현장을 방문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가루쌀 재배기술 지도와 판로 확대, 기업 참여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기자분들과 함께 군산의 제빵업소를 방문해 가루쌀로 만든 여러 가지 빵을 맛보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께서도 가루쌀의 성공을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루쌀’은 벼 과잉 생산문제와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가루쌀의 안정적인 재배 확대를 위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루쌀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14일

1962년부터 시작된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대표행사 윈윈(Win Win) 한마당 행사를 아시나요. 농식품 안전과 품질관리 경진대회 등 농관원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직원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렸고 직원들간 '배려와 존중', '조금 손해보고 살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업무도 최고, 분위기도 최고인 농관원을 만들어 갑시다.



정황근

2022년 10월 14일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지난 6월에 마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부터 39개 가루쌀 생산 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하고, 2026년까지 200개소로 늘려 '쌀 수급안정과 식량지급률'을 높이겠습니다.

2023년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39개소 선정
가루쌀 재배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

가루쌀 재배 첫걸음

-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선정
- 농가(주)프린트 관심과 참여
- 농식품부의 다양한 지원

1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선정

농식을 보는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39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지원할 예정

● 가루쌀 생산단지

연도	개소 수
2023	39
2024	100
2025	150
2026	200

단위: 개소

Q 가루쌀이란?

기본 분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가루처럼 세로 빵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로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고 영양가가 높아서 저탄산에 유리

2 가루쌀 재배 첫걸음

농가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쌀 수급안정 대책, 농가(주)프린트 관심과 참여

3 가루쌀 재배 첫걸음

농식품부의 다양한 지원

- 가루쌀 생산단지 선정
- 농가(주)프린트 관심과 참여
- 농식품부의 다양한 지원

가루쌀 생산단지 선정 및 확대(200개소)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쌀 수급안정과 식량지급률을 높여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하길 기원드리며, 가루쌀 생산은 가능하지만, 소비를 활성화 하기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18일

우리나라가 '여성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고 오늘 첫 번째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국제연합(UN)은 이미 2007년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제정해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은 이미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농업·농촌의 중심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애쓰고 계신 여성농업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19일

올해 처음으로 경북 예천군 소재 중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가금농장에서 20여일 빨리 검출되었습니다. 작년 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크게 증가하여 철새를 통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에 어느때 보다 우려됩니다. 총리님께서도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방역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 가금농가와 적극 협력하여, 농장 차단 방역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20일

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쌀값이 우리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잘 알기에,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로 많은 물량을 시장격리해서 쌀값을 회복시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부가 매년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고, 쌀값도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운 재정 낭비는 물론 농업인 소득과 농업·농촌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상황을 알려드리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3023?sid=110>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쌀소비는 줄어드는데 쌀생산 장려는 아니라 봅니다. 국가는 쌀 소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농가는 가루쌀, 밀 등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농산물이 산업화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22일

내일부터 5일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메룬과 기니 등 아프리카 2개국을 방문해 총리,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하여 지혜를 모으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2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카메룬과 기니의 농업장관 및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를 만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아 종식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장관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와 우리 농업의 우수성을 알려 국격을 높이고 오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정황근

2022년 10월 25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요청을 위해 카메룬의 조셉 디옹 은구트(Joseph Dion Ngute) 총리님과 르쥬느 음벨라 음벨라(Lejeune MBELLA MBELLA) 외교 장관님을 만나했습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최적이란 점을 설명드리고,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룬은 쌀 생산성 향상을 주요한 농정 목표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의 농업 경험을 알려드리고 벼 재배 기술과 장비 지원 등 양국 간 발전적인 교류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26일

카메룬 농업농촌개발부의 가브리엘 음바이호베(Gabriel Mbairobe) 장관님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고, 양국간의 농업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카메룬 내 센터주 응고텅(Centre Nkoteng) 지역에 벼 재배단지 및 농업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무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음바이호베 장관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가 지원한 농기계를 이용해 벼 수확을 해보며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28일

이곳 시간 26일 카메룬에 이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리산다 쿠야테(Morissanda KOUYATÉ) 외교장관님과 मामуду 나날렌 바리(Mamoudou Nagnalen BARRY) 농업장관님을 예방하여 양국간의 농업 협력 확대를 약속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 농촌진흥정이 통일벼 종자를 모태로 개발한 법시 품종을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하여 기니에 전달하였는데,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하여 시범 재배 지역에서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내일 WFP 협조하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28일

아프리카 방문 마지막 날, 둠부야(Doumbouya) 기니 대통령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쌀 증산을 비롯한 여러 경험을 기니에 지원해줄 수 있고, 그동안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점, 부산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이자 개발경험과 미래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다수성 벼 품종 재배 시범단지를 방문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쌀이 학교급식에 활용되는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기니와 다양한 농업협력을 추진하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메룬, 기니 방문
2022. 10. 24~10. 27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지 촉구 요청과
양국 간의 농업협력 강화 논의

카메룬 총리 및 외교부, 농업부 장관 면담
카메룬 벼 재배단지 방문

총리(프랑크 로랑 Joseph Dion Ngute), 외교부 장관(모루노 음벨라 르벨라 Legouere Mbella Mbella), 농업부 장관(가브리엘 음바이르베 Gabriel Mbarikou)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지 촉구 요청
KOPMA(에이엠에이기술개발사업) 사무소 설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협력 확대 논의
벼 재배단지 교역센터 방문, 수확 시간
의 거래 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농업 지원에 적극

기니 대통령 및 외교부, 농업부 장관 면담
벼 재배단지 및 학교 급식센터 방문

대통령(만사디 툴리야 Mamsa Doumbouya), 외교부 장관(모리스 바리 Moutoua Koutyate), 농업부 장관(마우두 나날렘 바리 Maimoudou Nagalem Barry)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지 촉구 요청
기니는 내년 초 KAFACI* 개원을 추진하고
KOPIA 사무소 설치 등 협력 약속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협력 논의
중요할 대수의 벼 재배 단지에서 방문
시범단지 생산 물품 제공받는 학교 방문
* 한국-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연합체



정황근

2022년 10월 29일

한 주간 동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카메룬과 기니를 다녀왔습니다. 두 국가의 주요 인사분들을 만나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양국과 식량안보 강화 등 농업분야 협력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0월 31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케스투티스 나빅카스(Mr. Kestutis Navickas) 리투아니아 농업부 장관님과 농업 분야 교류 확대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드렸고, 성공 기원의 화답도 받았습니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국의 농업·농촌 발전과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1일

무거운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무위원분들과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의에 빠져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빠르게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농기계와 자재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관계자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첨단 농기계 개발과 함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발농업 기계화 연구 등에 2027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을 통해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3일

오늘 충남 금산군 만인산농협에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개혁을 추진해오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중 산지유통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치기 쉽지 않은 마지막 단계의 숙원 과제였습니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의 자동화·데이터화·디지털화로 산지유통을 혁신할 수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산지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모범적인 유통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50개로 확대하여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디지털 유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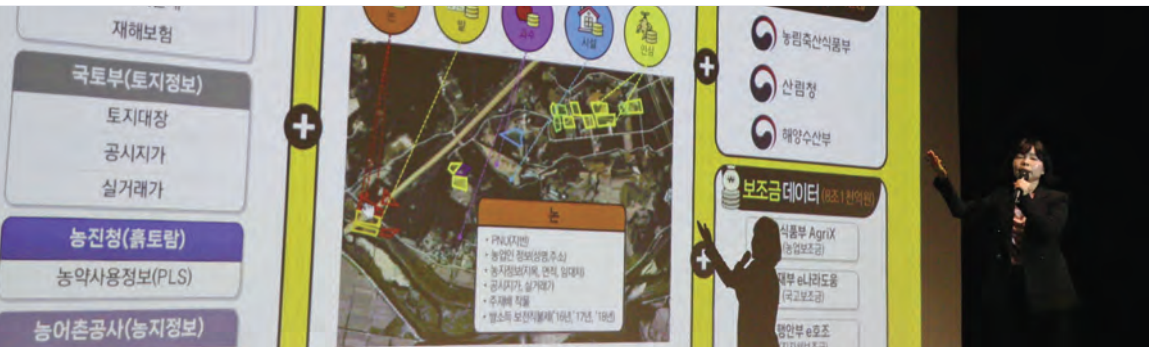
충북 청주시 육계·육용오리 농장,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방역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야생조류 서식지는 물론, 육용오리·육계농장에 이어 울거울 처음으로 산란계 농장까지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과 인근 지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와 함께, 전북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과 축산시설·차량, 전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시설·축산 차량에 대해 11월 6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각 지자체도 취약농가는 물론 산란계 밀집단지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농장 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9일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현장국민평가단'이 올해 농식품부의 7가지 혁신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 체감효과 등을 평가해주셨습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정책 고객인 국민과 농업인을 위해 기간 얼마나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농식품 정책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11일

11월 11일 오늘은 한 해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농업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7번째 '농업인의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정부도 쌀 시장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총 90만 톤의 쌀을 매입하고 있고, 비료·사료가격 안정 자금도 지원 중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고, 농촌이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묵묵히 농업·농촌을 지켜주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큰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에서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12건 발생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유럽·미국은 많게는 매달 100건, 가까운 일본도 현재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축산농가 여러분들의 더욱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의 사소한 미흡 사항이라도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축산 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해 주시고 철저한 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경부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 양돈·가금농가들과 협력하여 가축질병 추가 발생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16일

‘푸드테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올해 14번째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8%의 성장률, 57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K-푸드는 K-팝, K-드라마와 함께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핵심적인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품(Food)에 IT·BT·로봇 등 첨단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푸드테크’가 농식품 수출 확대와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식품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11월 17일

최근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산업 최전방에서 분투하고 계신 중소기업중앙회와 농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을 만나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식품원재료 공급, 각종 규제개선과 연구개발 지원 등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계와 관련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단체분들을 만나 뵙고 소통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23일

오늘 스무번째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한 해 동안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식탁에 올리기 위해 애써주신 축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1인당 소 돼지·닭고기 소비량이 지난해 56.1kg으로 역대 최대 소비량을 기록했습니다. 축산업 생산액도 전체 농업 생산액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축산업은 악취·분뇨 등 환경문제, 반복되는 수급 불안과 가축 질병 등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축산인께서 걱정 없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축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28일

코로나로 3년 만에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스물여섯 과학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으로 쌀 자급은 물론, 신선한 채소와 품질 좋은 축산물을 일년내내 국민 식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국내 식품산업도 570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스마트농업 확산,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농업·식품 분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29일

12월과 1월은 1년 중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야생조류 시가 54건 검출되어 바이러스 오염도가 3.6배 높고 이번 주 한파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외부에 퍼져있어도 농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AI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11.23~12.20일까지 '일제 집중소독 기간' 동안 실질적인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에 고압분무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고, 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 통제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11월 29일

2012년도에 창립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한 농정 파트너입니다. 오늘 신임 회장단과 만나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쭙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지역 소멸 등 농업·농촌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식량 자급 기반 구축과, 농업 직불금 5조원 확대 방안, 청년농 3만명 육성지원과 농촌 공간 재생 등 윤석열정부의 농정방향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의 조기 차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업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군수님께서 농업인분들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4일

최근 충남 홍성과 경기 평택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의 거점소독시설과 당진시청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이 일제 집중소독 기간(11.23.~12.20.)입니다. 가금농장의 내외부와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해 주시고, 가금농장에서는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실시, 축사 출입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의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응한다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역 기관과 축산관계자 모두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5일

오늘 경북 김천을 찾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만나 뵈고 왔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농업정책 집행에 애써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되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애로 사항을 귀담아들었습니다.

기관별로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방역·검역 등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과 영상이로나마 직접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철두철미한 업무 처리,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본인 건강 관리 등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복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농업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7일

1994년부터 정부는 전통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계승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하신 명인 79분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데 오늘 두 분의 명인이 새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시의전서'에 나오는 '가리구이'를 유사하게 복원하신 오명숙 명인, 1916년 '소호당집'의 인삼·홍삼 제조법에 가깝게 복원하신 송인생 명인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식품 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최고의 장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식품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한식문화공간 '이음' 내에 있는 식품명인체험 홍보관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7일

오늘 전국한우협회 회장단 관계자분들을 만나 최근 하락하고 있는 한우 가격과 수급 안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우농가 분들은 경기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와 사료가격 상승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한우 소비촉진과 도·소매가격간 연동성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 자금 지원, 생산비용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우 산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7일

지난 12월 5일 임명되신 장태평 신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님을 만나 보였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고 계신 분이시기에 든든한 마음이었습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농업·농촌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마음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면 밝고 희망찬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인 농특위와 함께 농업계를 둘러싼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 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농어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현안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11일

오늘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과 전남도청 상황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이후, 전남도 19건, 이중 나주시에서 6건의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주뿐만 아니라 영산강 유역의 영암, 무안, 함평에서도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해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신속한 정밀검사, 민관합동 소독, 그리고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가 3대 중심 축입니다. 농가와 축산계열화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일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12일

국제사회에서 우리 농업분야를 보호하고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EU·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는 물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서 주재관·파견관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주재관·파견관들을 만나,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ODA)와 통상협상 등 농업분야 국제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 농업정책 수립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국립농



정황근

2022년 12월 15일

우리 농업·농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조선시대 이후, 과학영농의 중심지였던 경기도 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부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국립농업박물관이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들께서도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세계 최고의 농업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만들기 등 주요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19일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우리 고유의 전통 농업기술과 문화, 농촌경관, 생물다양성 등 보전할 가치가 높은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려 시대 이후 모시 재배부터 모시짜기 전 과정을 100% 수작업으로 보전해 온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을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김기웅 서천군수님과 관계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서천군민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식품부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전통 농업기술과 농업문화가 후대에 보전·계승될 수 있도록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을 비롯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19일

연말 국군장병 위문차 농협, 농어촌공사 등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장님 등과 함께 충남 천안시 소재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을 방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군장병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국군 장병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품을 전달드렸습니다. 아울러, 군 급식 개선을 위해 농협과 함께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는 항상 우리 농산물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군장병과 우리 농업·농촌에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2년 12월 22일

오늘 우리 젖소 101마리를 네팔로 보내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 국제 사회와 민간국제개발단체인 헤퍼(Heifer)의 지원이 오늘날 축산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이루어낸 이번 '네팔로 101마리 젖소 보내기'는 단순히 젖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의 낙농가 교육과 전문가 파견,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분뇨의 비료 활용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사업(ODA)도 후속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틈틈히 한다면, 국격을 높이고 국익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젖소 보내기'가 네팔 낙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더 많은 나라와도 농업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선진 농업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네팔도 우리나라처럼 성공해서 돕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24일

매서운 한파,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관계자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 안성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시청 방역 대책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고 안성은 지난 12월 13일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산란계 밀집 지역이어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경우 계란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연장된 집중 소독 기간동안의 방역대응이 중요합니다. 산란계 농장과 밀접한 하천 인근과 대규모 농장에 대한 집중소독과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파로 인해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에 열선을 설치하여 주시고, 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강화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25일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폭설과 한파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전·남북 등의 농업 시설 19.4ha 피해가 접수되었고,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자체·농협과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조사와 농협 손해평가도 신속히 진행하여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피해 농가분들께 지급하겠습니다. 피해 지역의 고령농, 독거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폭설과 한파로 인한 배추와 무, 시설택소 등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보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매뉴얼도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 농업인께서 하루빨리 재기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26일

오늘 전북 정읍시 폭설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피해 농업인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농협은 신속한 복구와 함께, 재해보험금, 복구비 등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청에서는 이번 대설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생육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상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 관련 규정과 미흡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2년 12월 28일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https://youtu.be/r9up_4KU84I





정황근

2023년 1월 4일

오늘은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올 한해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과 'K-농업 해외 진출 확대', 온라인 가락시장 출범을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체 내용은 오늘 저녁 10시경 K-TV에서 녹화 중계되고, 유튜브에도 공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농업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농업정책이 돋보입니다!



정황근

2023년 1월 4일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식량안보와 쌀문제 해결, 수출 100억불 달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올해 농식품
부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youtu.be/9DMtRbNU4I8>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한국농경 발전과 농업인으로부터 칭송받는 성공한 장관님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28일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양주시 거점소독시설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계속되고, 주로 봄-가을철에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올해 들어 경기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일선 방역 현장에서 농장 예찰·검사 및 집중소독을 확실히 하고, 설 명절 전·후 철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실무 담당자분들은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장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관계자께서는 농장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 해주시고 일선 방역 관계자분들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1월 16일

오늘 경기도 안성시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와 농협 대형마트를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설 연휴 3주 전부터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할인 쿠폰 예산도 161억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료·비료·유류 등 경영비 부담 경감, 농축산물 소비촉진, 대설피해 최소화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현장을 찾아가 해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정황근

2023년 1월 16일

오늘 YTN 이브닝 뉴스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정부 입장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급 및 대책 추진상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등 농식품부 현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youtu.be/zBF6R8uuSpk>



YOUTUBE.COM

'양곡 관리법' 처리 여야 충돌...정부는 법안 '반대'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



정황근

2023년 1월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주시에 있는 산성시장과 사회복지시설에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전통 시장 상인분들께 감사드렸고, 농식품부도 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쿠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과 위문품도 사회복지시설인 '소망공동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농축산물로 가족, 이웃과 정을 나누고, 소외받는 분 없이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월 18일

오늘 서울 a센터에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전망2023'에 다녀왔습니다.

농업전망대회는 매년 농업·농촌의 주요 지표를 짚어보고 분야별로 미래를 전망해 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보다 나은 농업농촌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식량주권 확보와 미래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 삶의 질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1월 18일

오늘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청년농과 스마트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https://youtu.be/PgJwCNqyrWY>



YOUTUBE.COM

정황근 "농민단체 대부분, 양곡관리법 반대" [오창익의 뉴스공감]

#오창익의뉴스공감1/18(수) 오창익의 뉴스공감O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직접 발로 뛰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암행어사 장관님.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정황근

2023년 1월 19일

설 명절에는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시기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우리 식탁에서 많이 소비되는 계란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산란계에 대해 2중, 3중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드렸습니다.

고병원성 AI가 현재 국내 야생조류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가끔 농장에서 역대 최대인 62건(23.1.19. 기준)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가축질병 발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기본수칙을 지키고, 일반인들은 철새 도래지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방역의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 관계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가축방역 비상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월 19일

오늘 경북 문경에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과 농업분야 인력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학홍 경북도 부지사님과 신현국 문경시장님, 임이자 국회의원님과 함께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채소 재배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농업분야의 제일 큰 애로사항은 인력난이었습니다. 농업인들께서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올라 어려움이 컸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가의 인력 수요조사와 영농작업반 운영을 지원하고, 고용부는 도시 구직자 모집, 지자체는 농업 일자리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농촌인력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고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월 26일



오늘 서울 aT 센터에서, 농업분야 수출산업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케이 푸드 (K-Food)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대내외 경기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농업분야 수출로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합니다. 수출 최전선에서 제가 직접 챙기면서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치인 88억 3천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농업 분야에서 모두가 '원 팀'이 되어 힘을 모은다면,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 농식품 100억불, 관련산업까지 130억불 이상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본부장으로서 현장을 더 자주 다니면서,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2월 6일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C블로썸파크(바이오·식품 통합 연구소)에서 그린바이오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설명드렸고, 업계와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린바이오는 종자·미생물·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산업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입니다.

2020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매년 6.7%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부는 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제품개발·수출·데이터 등 산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2월 14일

오늘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푸드테크는 출발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입니다. 작년말 발표한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을 착실히 실천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업계,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각 부처 정책사업도 효율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모두가 '원 팀'으로 현장 애로를 해결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2월 15일

이번주 금요일부터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대대적으로 시작합니다. 연말까지 전국 980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평시 20%, 비수기에는 최대 50%까지 소비자 가격을 인하합니다.

아울러 가공·급식업체 식재료를 한우로 대체하고, 수출물량도 올해 20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매점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통비용 절감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 규모 사육 농가분들을 위해 사료구 매지금을 1조원 규모로 작년대비 2배 이상 늘리고 농업경영회생자금(연리 1%)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가격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우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한우 농가를 위해 큰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2월 16일

오늘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스마트팜 선도업체인 우듬지팜을 방문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시 우듬지팜을 비롯해 농심·포미트·올레팜 등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현지 기업과 5천 6백만 불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스마트팜 수출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온실·기자재·인력 등을 함께 수출할 수 있어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중동을 비롯한 수출 유망국에 시범 온실 조성, 전문인력 지원 확대, 수출자금 신규 공급, UAE 국부펀드 투자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가 중심이 되어 농식품을 비롯한 스마트팜 등 연관 산업의 수출과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2월 17일

오늘 우리나라 농어업전문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위수여식에 다녀왔습니다. 1997년 한국농수산대학교 개교한 이후 6,9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청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핵심 인재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더 크게 꿈꾸고, 더 높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지자체 모두가 힘을 합쳐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농어업이 일반화되는 시대를 맞아 졸업생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본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농어업·농어촌, 국가 발전을 위해 큰 뜻을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사회를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한 졸업생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2월 23일

오늘 대통령님을 모시고,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계 등 연관 산업까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2027년까지 케이 푸드 플러스 수출 규모를 230억 불로 2022년의 2배로 늘려 농식품과 연관 산업을 대한민국 수출 효자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2월 28일

오늘 CJ제일제당, 오뚜기, 오리온, 농심 등 주요 식품업체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7월 이후 다소 둔화되었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10.3%(23년 1월 기준)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업체 대표님들께 밀가루 가격 안정과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을 설명드리고, 식품물가 안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품업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2일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인 아홉 분께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습니다. 감자빵, 매운맛 축정기, 잡초생장방지장치 등을 개발하고, 발효유와 발효사료 기술을 보급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농식품부는 '99년부터 매년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벌써 477명의 신지식농업인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분들 모두가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농업경영인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주위 청년 농업인들의 멘토도 되어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함께 연대하여 농업이 미래성장농업·수출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지역과 국가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8일

국가 기반인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을 찾도록 하려면 농촌이 도시 못지않게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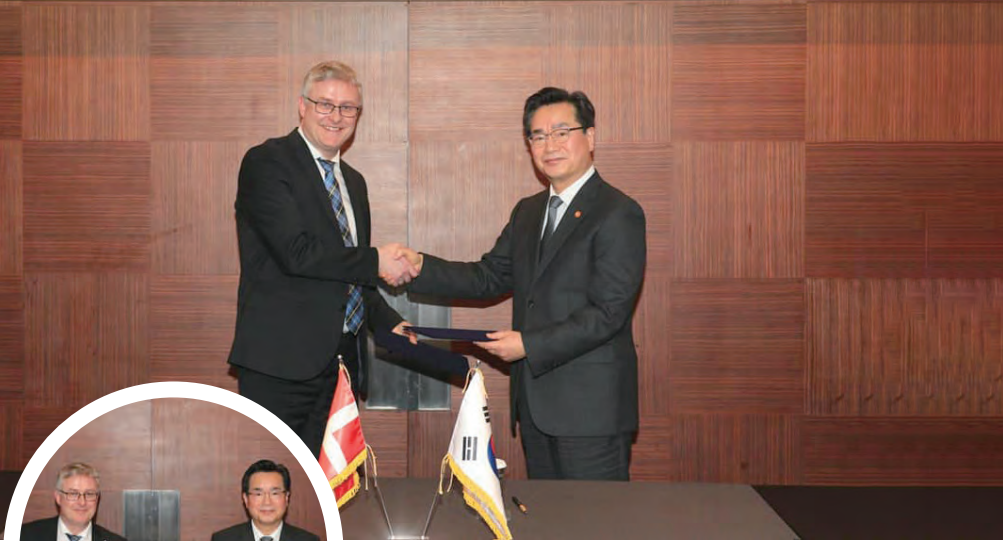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촌 재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천군 지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이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청년세대가 단지에 입주하여 활기 넘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농촌보급자리는 현재 총 9개소를 선정해 이 중 서천군을 비롯한 4개소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까지 70여개소를 선정·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넘치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덴마크 농식품 분야의 녹색전환 협력 의향서 서명식 Signing Ceremony of the Green Transformation LOI on Agrifood Sector between Korea and Denmark

2023. 3. 9. (목) 서울



정황근

2023년 3월 9일

국가 기반인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을 찾도록 하려면 농촌이 도시 못지않게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촌 재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천군 지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이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청년세대가 단지에 입주하여 활기 넘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농촌보급자리는 현재 총 9개소를 선정해 이 중 서천군을 비롯한 4개소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까지 70여개소를 선정·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넘치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10일

매년 3월 11일은 농업의 근간이자 우리 삶의 터전인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흙의 날'입니다.

최근 들어 흙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토양관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토양 분석과 관리, 적정 비료사용 연구를 지원하고, 농가에 친환경적인 토양관리 방법을 지도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흙의 날'을 맞아 건강한 흙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13일

오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분들과 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및 육우고기 소비 확대 지원 등 낙농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 제도 정착, 육우 가격 하락 대응 등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15일

매년 3월 11일은 농업의 근간이자 우리 삶의 터전인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흙의 날'입니다.

최근 들어 흙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토양관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토양 분석과 관리, 적정 비료사용 연구를 지원하고, 농가에 친환경적인 토양관리 방법을 지도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흙의 날'을 맞아 건강한 흙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17일

오늘 26명의 농업인단체장분들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농업 경영안정지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고령화, 농촌 소멸 등 당면한 문제를 농업농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다른 분야의 자본과 기술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드렸습니다.

주요 분야, 품목별 현장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농업인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정황근 장관님. 언제나 든든하고 신뢰가 갑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20일

오늘 충남 논산시 수출용 딸기 농가와 선별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논산시는 국내 딸기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면서, 딸기연구소에서 매향과 설향 품종을 탄생시키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딸기는 과거 일본 품종이 많았지만 현재는 국산 품종 보급률이 97.8%에 이르고,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중 대표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UAE 순방 행사시 킹스베리, 설향의 맛과 뛰어난 품질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딸기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 농식품 100억 불, 연관산업까지 135억 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21일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 농업분야 전체 수출액은 118억 불로 '21년 112억불 대비 약 5%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기계는 최근 2년간 가파른 성장세이며, 농업분야 전체 수출액의 14.7% 차지하는 수출 효과 상품입니다.

오늘은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충남 천안시 소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기계업계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산업 분야에 지원하는 저리의 정책자금 규모를 작년 2천억 원에서 올해 3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로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 정책자금 2.2조 원을 확보하고, 혁신성장펀드 3조 원 투자 대상에도 농기계 분야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산 농기계가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2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와 많은 전문가, 그리고 농업계조차 쌀 산업과 농업·농촌 미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과 신중한 재고를 요청하였음에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쌀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남는 쌀을 사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은 감소할 것입니다. 쌀 이외 생산 확대가 필요한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로의 전환도 어려워집니다. 농업, 농촌,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통과된 수정안도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회의 뜻은 존중해야 하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쌀 생산자와 소비자, 쌀 산업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며, 근본적인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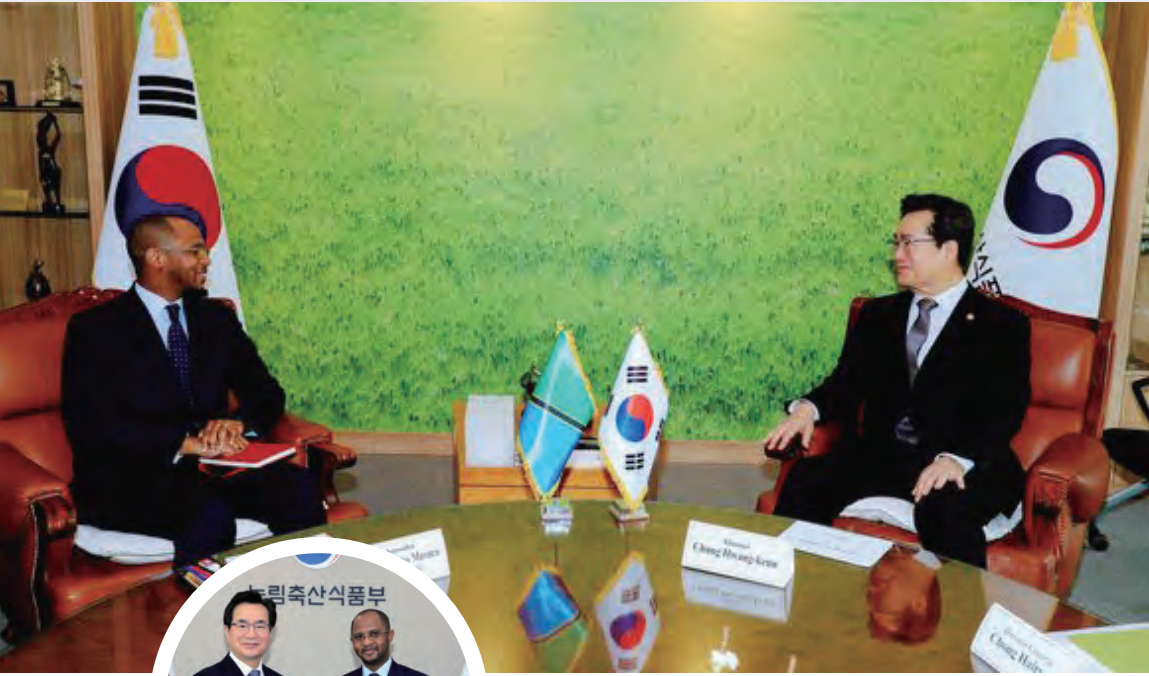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3년 3월 24일

오늘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Mr. Togolani Edriss MAVURA) 탄자니아 대사와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양국이 협력해왔던 쌀 품종 개발과 인적 역량 강화 외에도 쌀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새마을 운동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탄자니아의 지지도 요청드렸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우수한 쌀 품종 개발·보급을 통해 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고, 기아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7개 국가에 3천만 명 분의 쌀 생산기반을 만드는 'K-라이스벨트(K-rice belt)'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K-농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 국격을 높이고, 기업에게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27일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 동력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이 다함께 모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님이 함께 자리해주셨고, 강원 전북을 비롯하여 대전·충북·경북·경남·제주 등 7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두가 '원팀'이 되어, 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등 6대 핵심 분야별로 지역과의 연대, 기관간 협업,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29일

어제 YTN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가루쌀, 밀, 콩 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균형 있는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3월 29일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하여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총리께서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으로 농업인과 농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가루쌀·밀·콩 산업을 활성화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쌀산업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이해하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양곡관리법 관련 정황근 장관의 영상 : <https://youtu.be/qHUez3kQ0GA>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농업, 농촌, 농민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을 선택하시는 장관님의 충정이 담긴 설득이 성공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단체 간담회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10: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2023년 3월 30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관심 증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장급 전담 조직인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출범 100일을 맞아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물보호단체장님들과 만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농식품부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사람과 동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사회(One Welfare)를 만들기 위해 많은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4월 4일

오늘 정부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만들어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남게 만들게 됩니다.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쌀값 하락과 쌀 재배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량안보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30년 한 해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어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고,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3년 4월 6일

오늘 (일명)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민·당·정 간담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MBN 뉴스7 에도 출연해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수확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 농업을 30%까지 확대하고, 그린바이오와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습니다.

현장을 세심히 살피는 대책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첨부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쌀 수급안정 어떻게?



N.NEWS.NAVER.COM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쌀 수급안정 어떻게?

너무 많이 생산된 쌀은 정부가 사줘야 한다 아니다. 그건 진짜 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말이 ...



정황근

2023년 4월 13일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4월 17일

오늘 대한수의사회 신임 회장단분들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축산 시장 확대에 따라 수의사분들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별로 전문화된 의료전달체계 구축도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을 신설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동물의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축질병 방역관리에서 수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3년 4월 19일

농식품부는 지난 1월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농식품과 연관 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식품 및 관련 기업대표·유관기관장들과 현장 애로와 건의를 검토하여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총 40개국의 456개 기업이 참가하는 '2023 K-Food+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개최됩니다. 농식품부는 사전에 해외 바이어 정보 제공, 기업간 면담 주선 등 실제 수출계약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고 해외마케팅과 정책금융자금(2.2조원), 혁신성장펀드(3조원) 등 자금도 전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계와 정부,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올해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목표 135억 불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4월 20일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농협과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최대 30% 할인된 토마토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쓴맛 나는 토마토'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농가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정 품종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모두 폐기되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번 계기에 토마토 농가도 돕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마토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4월 20일

오늘 마크 페노(Marc FESNEAU)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장관과 농식품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물권 진전을 위한 양국간 동물복지 정책 교류와 프랑스-핀란드가 주도하고 있는 '학교급식 연합' 가입을 통해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한국산 삼계탕의 유럽연합 수출을 위한 허용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후변화, 농촌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인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확대 등 앞으로 양국간 농식품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4월 25일

오늘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자, 농식품부 담당자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충남도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충남도는 청년농업인 영농단지화 스마트 ICT 축산단지 조성, 펫웰페어콤 플렉스 등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농식품부도 충남도가 구상하는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농과 스마트농업 육성, 농촌의 재구조화를 위해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해왔던 제도의 틀을 현장에 맞게 고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4월 26일

오늘 농식품부가 21개 시·군과 손을 잡고,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를 약속하는 '농촌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농촌 공간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계획을 세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농촌협약'을 계기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해 농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농촌을 도시민과 기업이 찾아오는 공간이자, 미래 자산, 그리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가꿀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4월 27일

오늘 '가루쌀로 여는 농업과 식품의 미래! 가루쌀로 지키는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주제로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가루쌀은 밀처럼 직접 가루로 만들기 적합한 세계 유일한 새로운 쌀 품종입니다. 올해 2천ha의 전문단지에서 품질 좋은 가루쌀을 생산하고, 전문업체가 대량 제분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식품업체들이 라면, 칼국수, 식빵, 과자, 튀김가루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저당 쌀가루 활용'과 '쌀의 노화 지연 기술'도 연구 개발해 제품화하겠습니다.

가루쌀 농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루쌀 제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일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진행되는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5월 중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5월17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수준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와 한돈 등 우리 축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분들이 수급 불안, 사료가격 인상 등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께서도 우리 축산물 소비와 축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2일

세계인들은 '한국'하면 K-POP 다음으로 '한식'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방한 사유 1위가 '미식관광' 목적일 만큼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입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음식과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릴레이로 케이푸드(K-Food) 붐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자리로 'Cuisine.K' 프로젝트를 발족한 CJ제일제당과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 셰프 양성, K-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K-푸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 수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K-푸드 글로벌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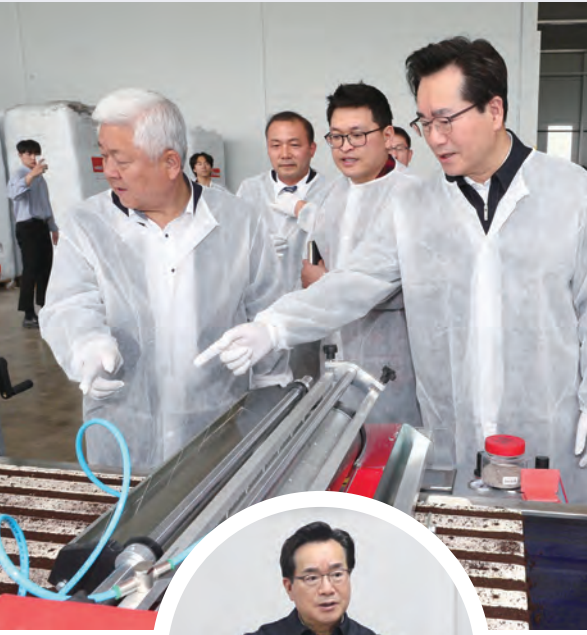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정황근

2023년 5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발전’ 정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전북 무주군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농촌 정착에 필요한 ‘초기 소득, 자금, 농지, 주거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두 배 늘리고, 지원 금액도 월 평균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청년농업인들께서 의견주신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현장에 더 도움되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은 국가의 보배이자 미래 농업의 주역입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4일

오늘부터 한 달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열리는 '2023 하동세계차(茶)엑스포'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차(茶) 소비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하동세계차(茶)엑스포'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전시, 교역, 이벤트, 체험 및 관광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하동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리 차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하동세계차엑스포에 오셔서 천년을 이어온 '우리 차(茶)'의 향기와 함께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1일

미래지향적 농업협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양국과 식량안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 등으로 협력 확대 기반을 확대하고, 팜유 등 중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동남아 시장에 김치·과일 등 케이푸드(K-Food)뿐만 아니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K-Food 플러스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 118억 불로 역대 최대 수출액에 이어, 올해는 13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업계와 유관기관 모두 원팀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양국과의 농업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가 '케이푸드 수출 영업사원'이 되어 농식품 수출 시장을 넓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2일

오늘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수의검역청, 농업연구개발청 등과 함께 할랄 인증 한우 수출 관련 협의를 갖고, 앞으로 양국간 농업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교환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구제역 발생 즉시 말레이시아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백신접종, 축산물이력제 등 한국의 과학적인 방역과 엄격한 관리체계, 청주에서만 발생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앞으로 스마트 농업기술 및 할랄식품 등 양국간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농업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할랄시장의 주요 관문인 말레이시아에서 케이-푸드를 적극 알리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2일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양국간 검역 협상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한우' 1호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세계 할랄 산업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에 할랄인증 한우의 첫 수출 길이 열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에 이어 4번째로 한우 수출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한우 수출 행사에 현지 유통·외식업체 대표와 언론, 양국 정부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우의 맛과 식감, 엄격한 위생·안전 관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간 농축산물 교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해외 한우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축산인들의 희망입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3일

오늘 말레이시아 최대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인 KMT를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한국 농식품 전문매장인 K PLUS Food Market을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이 상상 이상으로 K-Food를 선호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말레이시아 최고 스타쉐프인 셰프 완, 농업연구개발청장 등과 함께 김치 홍보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김장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고, 전 세계인들에게 건강 발효식품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이러한 김치를 비롯해 딸기, 단감, 라면, 음료 등 다양한 우리 농식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출액도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랄시장의 관문인 말레이시아에서, 김치와 한우를 비롯한 다양한 케이 푸드(K-Food)가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4일

오늘 자카르타 해변에 위치한 농어촌공사의 '해외 농업기반시설 설계 수주사업 현장'을 방문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을 만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수도 이전을 결정할 만큼 해수 범람·홍수 피해와 지반 침하 피해가 심각한데, 이 곳에 우리 새만금 방조제 축조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조원에 이르는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길이 33km)과 내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해 인니 정부와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 개도국의 댐·수로 등의 수자원시스템과 농촌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현장에 와보니 무척 감동 깊었습니다. 우리의 농업 관련 기술력이 해외 곳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5일

오늘 국회 외통위 김태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매경미디어 장대환 회장님 등 여러분과 함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님을 예방했습니다.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인도네시아는 인구 4위의 자원 부국이자 가장 비중이 큰 할랄 시장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산업 전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양국간 농식품 교역액도 매년 20% 내외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코 위도도 대통령께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공급망을 결합하는 농업협력 확대, 양국 할랄 인증기관 간의 상호 인증을 위한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이번 예방을 계기로 양국의 농업발전 협력을 강화하고, 할랄식품 수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5일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명의 인구, 한류 문화와 K-푸드에 대한 높은 선호가 있는 유망 시장이지만,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수입 농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등에 대비한 실질적·구체적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KOTRA와 aT 지사장님, 대상아궁 인도네시아 법인장님과 한국 스마트 벤처기업, 식품기업 관계자들을 모시고 '농식품 시장진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멀리에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인니 시장을 열겠다는 한 마음이라고 느꼈고, 말씀해주신 다양한 의견들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국제식품 박람회와 물류시설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돕고, 아세안 지역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6일

어제 국회, 기업, 언론 등 많은 분들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님을 예방했습니다. 농업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더욱 진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우리나라 우수한기술이 해외에서 빛을보고있네요 파이팅입니다



럼



정황근

2023년 5월 16일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 밤방 수사트요(Bambang Soesatyo) 국민평의회 의장님,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바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투자부 장관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양국 기업인들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적은 농지와 부족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농업기술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끌어 낸 저력이 있습니다. 농업의 스마트화, 식품 공급망 확대, 할랄 식품 협력 확대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농업 분야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양국의 농업 분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우리 농식품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6일

오늘 샤를 야신 림포(Syahrul Yasin Limpo)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을 만나, 지난 2011년에 체결했던 양국간 농업협력 MOU 개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 이후 그간 농업·농촌의 여건은 빠르게 변화했고, 이에 맞춰 양국간의 협력 사항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식량안보와 식품공급망을 튼튼히 하고, 스마트팜과 농기계·시설 등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많은 인구나 풍부한 자원이 있고,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개발과 농업·농촌을 발전시켜온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간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쌓아온 양국의 견고한 관계에다 서로의 장점과 신뢰를 더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큰 우정과 협력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앞으로의 50년을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5일

오늘 대한민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신 많은 기업인분들과 함께 인니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양국간 농식품 안전성 검사 간소화, 현지 낙농산업 육성과 농기계 공장 설립, '24.10월 할랄인증 표시 의무화에 대비한 상호 동등성 인정 등 협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귀국하는 대로 낙농·축산업계, 스마트팜·농기계 업계분들께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 9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농업분야가 국가간 협력을 튼튼히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17일

지난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증평군 소재 한우와 염소 10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섰던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행안부·환경부 등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상황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오늘까지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 우제류 농장의 긴급백신 접종과 20일까지 전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철저하게 확인검사를 합니다. 30일까지 2주간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 이동제한과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장의 강도 높은 소독도 실시합니다.

한쪽이 뚫리면 전국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농업인, 축산관계자 모두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한 방역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2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규모를 10만톤으로 올해보다 두배로 확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기여 규모 확대, 한국형 라이스벨트(K-Ricebelt)를 통해 '27년까지 아프리카 7개국, 3천만명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글로벌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G7 정상회담 계기,
농림축산식품부,
세계 식량안보 기여 본격 확대



정황근

2023년 5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5만톤에서 매년 1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4월 새로 부임한 신디 매케인(Cindy H. McCain) WFP 사무총장은 5월 23일 “대한민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기아 해결의 모범사례”이며,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되어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공여국”이라며 우리나라에 환영과 감사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기여 규모도 확대하고, 아프리카 7개국(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에 한국형 라이스벨트(K-Ricebelt)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식량원조 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더 큰 대한민국

유엔세계식량계획(WFP), G7 정상회의에서 식량원조 확대 발표에 환영과 감사의 성명 발표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말 큰 성과와 더불어 국격이 먼 아프리카까지 널리 알려지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글로벌화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29일

지난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증평군 소재 한우와 염소 10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섰던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행안부·환경부 등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상황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오늘까지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 우제류 농장의 긴급백신 접종과 20일까지 전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철저하게 확인검사를 합니다. 30일까지 2주간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 이동제한과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장의 강도 높은 소독도 실시합니다.

한쪽이 뚫리면 전국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농업인, 축산관계자 모두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한 방역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5월 30일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님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와의 첫 번째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5개월로 다소 짧았던 계절근로제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연장하고, 이미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도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도 상반기 24,418명에 이어 하반기 10,196명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농촌 구인난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조기 정착시키고 중장기 제도 개선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 덕분에 농촌 농민분들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수고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겠네요



정황근

2023년 6월 7일

오늘 충남 부여군 임천면 남당마을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모내기를 했습니다. 남당마을은 청년들과 지역 농업인들이 합심하여 영농법인을 만들어 쌀·밀·조사료 등을 공동 재배·경영하고 있는데, 올해 가루쌀을 107ha나 재배하는 전문단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현장 관계자분들과 같이 쌀·밀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내기에 사용할 모판도 살펴보고, 마을 주민분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새참을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 수준 유지, 안정적인 가루쌀 재배와 소비처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과 식량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겠습니다. 청년들이 농업·농촌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 박수를 보냅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농업인분들께 희망을 주셨네요!



'23년 소비자단체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담회

일 자 2023. 6. 8. (목)

장 소 포시즌스 호텔 서울

주 회 농림축산식품부

주 관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황근

2023년 6월 8일

오늘 소비자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농식품·외식분야의 전반적인 물가 상황, 가루쌀 등 주요 농경 현안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위해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많은 협력을 해오고 있고, 소비자단체에서도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등 물가 안정에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루쌀 가공품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6월 12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오늘 경북 김천시에 있는 금화저수지 가서 농업용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곧 여름철 집중 호우가 시작되고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여름철 풍수해 및 저수지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용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성능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농업인 · 스마트팜 육성 및 농업바이오단지 조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 현대건설 MOU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2023. 6. 14(수)



현대건설



정황근

2023년 6월 14일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서산에서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故) 정주영 현대 회장이 조성한 서산 간척지에 농업바이오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영농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단지 조성하고, 자원순환형 신재생 에너지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현장과 기업이 협업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6월 15일

함양군 양파 기계 수확 현장 방문. 2025년까지 양파-마늘 주산지 27개 지역에 기계화 우수모델 정착. 속도감 있는 발농업 기계화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농촌에서 고령화로 힘든데 좋은 기계가 일손을 도와주세요^^



정황근

2023년 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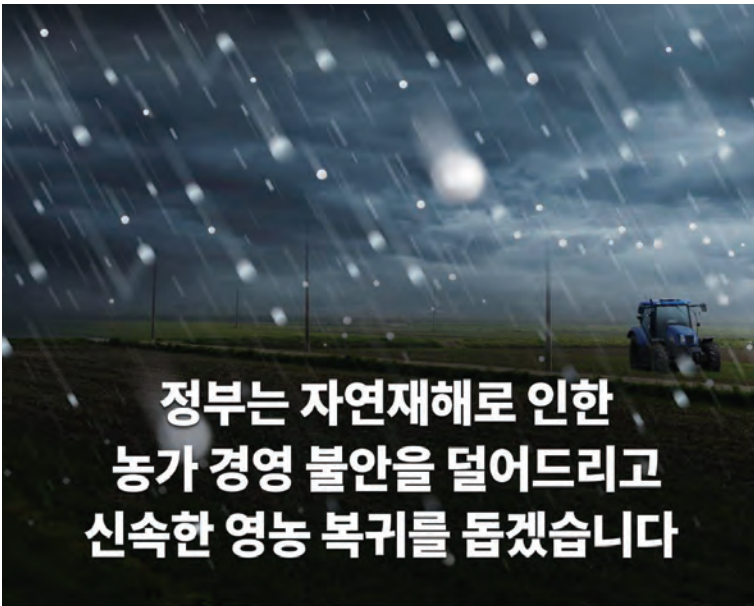
대한한돈협회 회장단 및 대구경북양돈농협과 소통의 시간.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철저한 방역,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드렸습니다.



정황근

2023년 6월 19일

올해 기상 이변으로 냉해, 우박 피해가 많습니다. 신속한 조사로 피해 지원과 재해 보험금 지급 등 농업인분들의 영농 복귀를 돕고, 농산물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3년 6월 21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스마트팜 청년 기업 방문. 우리 스마트팜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이 작은 나라에서,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정황근

2023년 6월 23일

하노이 국가컨벤션센터(NCC)에서 'K-Food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떡볶이, 라면, 음료, 과일 등 K-Food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K-Food 대표 수출기업들을 만나고, 쿠킹쇼에서 양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와 '반미(Banh Mi)'가 어우러진 '김치 반미'도 맛보았습니다. K-Food를 통해 양국 간 우호를 다지고,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6월 24일

베트남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불닭 볶음면을 개발하신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을 비롯하여 조영석 CJ 제일제당 부사장님,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님, 고상구 케이마켓 회장님 등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에 초석을 다져준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K-Food+ 시장 확대를 위해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시장조사, 정보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6월 25일

베트남 최대 기업 빈(VN)그룹 산하 유통전문기업인 빈컴몰과 베트남 최대 유통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원마트에서 K-Food 홍보행사를 가졌습니다.

떡볶이와 음료류(두유), 파프리카 등 우리 농식품 유통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이번 홍보행사 기간 동안 원마트, 케이마켓, 롯데마트, 이마트 등 베트남 주요도시 160여개 매장에서 한국농식품 판촉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베트남 국민의 K-Food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K-Food 열기를 동남아 농식품 수출 확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6월 27일

다시 찾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를 구상하게 된 이곳 기니,
이제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댓글 4개 공유 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정말 큰 성과와 더불어 국격이 먼 아프리카까지 널리 알려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6월 28일

기니의 베르나르 구무(Bernard Goumou) 국무총리님, 마이무나 욘부노 (Maimouna Yombouno) 국회부의장님을 면담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한국이 개발한 벼 종자와 농업 기술을 함께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사업과 한국의 협력 의지에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저도 기니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에서 자신의 사유지까지 활용하여 한국 벼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일부는 학교 급식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K-라이스벨트'사업을 비롯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양국 간 농업협력과 우호관계의 폭을 더 넓히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6월 30일

기니비사우의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Umaro Sissoco Embaló) 대통령과 수지 바르보자(Suzi Barbosa) 외교장관을 만나했습니다. 한국의 장관급 인사가 기니비사우를 방문한 것이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니비사우는 쌀이 주식이고 대다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쌀 생산성 증대가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K-라이스 벨트', 인력 교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 대통령께서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의장도 맡고 계신만큼, 큰 역할을 기대하고 앞으로 농업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2일

농식품 수출 확대와 현지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2023년 파리 케이푸드 페어 (K-Food Fair)"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유럽 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농식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할 만큼 많은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고, 프랑스 유튜버들과 함께 김치와 막걸리, 김밥 등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유럽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6일

채널A 뉴스A라이브

“민생을 부탁해” 코너에 출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농식품 물가 안정, 농식품 분야 수출 확대와 공적 개발원조 (ODA)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경제적으로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을 해내셔서 신나고 감사드려요. 영업사원 1호로 열심히 하시네요!^^



정황근

2023년 7월 6일

대통령소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3기 공식 출범.

농업·농어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현장과 관계부처의 가교로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7일

‘2023 도농 교류의 날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청정 자연환경,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촌(村)스러운 여름휴가’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농촌이 국민께 ‘여가와 휴식’을 선물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10일

쌀로 잇는 아프리카와의 따뜻한 우정.

오늘 한덕수 총리님과 아프리카 8개국 대표님, 각국 주한 대사님들을 모시고 쌀 생산성 증대 협력을 위한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녹색혁명과 새마을 운동처럼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아프리카와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다른 분야로 협력을 넓혀가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12일

연일 전국에 국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비가 내렸고, 내일 오후부터 장시간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지자체, 유관기관의 농업분야 대비 태세를 재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현장 지도에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농업인께서도 집중 호우시 외부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수장과 저수지 등 농업 시설물 관리, 채소류 수급안정, 가축 매몰지 관리, 산사태 대처 등 각 분야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13일

오늘 총리님 주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님, 민간위원님들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농업·농촌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 온실과 축사의 30% 스마트농업 전환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14일

다자녀를 키우는 농식품부 직원들과의 점심.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 활성화 등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정황근

2023년 7월 15일

유관기관, 지자체와 집중호우 농업분야 대응 상황 점검회의 개최.

유례 없이 장기간 광범위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유관기관과 지자체 담당자에게 “①산사태 우려지역과 영농 현장에서 인명 피해 및 안전사고 방지, ②배수장 총력 가동, ③집중 호우가 끝나는 대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영양제-농약 사전 확보 및 긴급 공동방제 실시, ④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⑤고랭지 배추 등 농산물 수급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이번 집중 호우 기간에는 최대한 현장 활동을 자제하시고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김제시 콩 생산단지과 충남 부여군의 멜론 시설하우스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피해 농업인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진청·농어촌공사·농협 등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배수 처리, 긴급 방제 및 영농 지원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금번 장관님의 부여방문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빠른 복구로 피해 농민의 아픔이 치유되길 기대합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와 논산의 비닐하우스, 축산 농가, 육묘장에 오늘 대통령님과 다녀왔습니다.

농업인께서 땀흘려 일군 농작물과 가축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신속한 응급 복구와 충분한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의 배수펌프 시설 지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20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고랭지 여름배추 점검.

여름배추는 고랭지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매년 여름 집중호우·태풍·폭염 등으로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배추는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황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 비가 내린 후 고온이 되면 여름배추에 무름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 현장에 가보니 농업인분들과 농협에서 각별히 방제에 신경써주신 덕분에 현재까지 생육은 양호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비상시에 대비해 봄배추 1만톤, 봄무 6천톤을 비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24일

카를로스 엔히키 바케타 파바로(Carlos Henrique Baqueta Fávaro)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 면담.

브라질은 세계에서 5번째로 넓은 면적, 7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협력은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스마트농업,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농업기술 혁신, 검역 등 다양한 분야로 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7월 25일

충남과 전북 등 피해 농가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농식품부와 소속·공공기관, 농협 직원들이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피해 농업인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재해 복구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병충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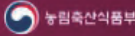
정황근

2023년 8월 1일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입니다. 무더운 한낮에는 농작업을 중지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행동요령 

폭염 주의 안전한 여름나기

⚠️ 안전사고 예방

- ☑ 낮에는 농사일을 멈추고 휴식 취하기(작업금지)
- ☑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
- ☑ 야외 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착용
- ☑ 냉방기가 갖춰진 무더위 쉼터 이용
- ☑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등 외출 자제
- ☑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정황근

2023년 8월 1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코너에 출연.

최근 폭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지원, 장바구니 부담 완화, 원유(原乳) 가격 결정과 영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N.NEWS.NAVER.COM

[뉴스워치] 호우피해 농가 지원 어떻게...장바구니·외식 물가는?

극한 호우로 서울 여의도 면적 180배가 넘는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한창이지...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여러모로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3일

집중 호우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강원도 여름배추에 무름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급히 강릉 안반데기(해발 1100미터 고지대)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어 보였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금방 병해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작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진청·농협 등 관계기관에서 기술지도, 약제 할인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도 봄배추 12,500톤을 비축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분들께서도 병해 방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 낮 무더위 농작업은 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7일

제6호 태풍 '카눈' 복상에 대비한 긴급 점검회의 개최.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농업인들께서는 태풍시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과 농협 행복콜센터에서도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는 필요시 산사태 우려지역 및 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피 등 선제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됩니다. 농식품부 중심으로 지자체·관계기관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분야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9일

복상 중인 태풍 '카눈'에 대비한 긴급 현장 점검차 안성 배 재배 농가 방문. 농업인들께서는 비닐하우스 결박 조치는 잘 되어 있는지, 출입문과 환기창은 고정 되어 있는지, 지주시설과 배수로도 마지막으로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기까지 외출을 자제하셔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농업분야 관계기관, 지자체 모두 비상한 각오로 이번 태풍에 대응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14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인, 전문가분들과의 간담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되면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등 4대 주력 분야를 선정하여 '22년 8조 원 수준인 시장 규모를 '27년까지 두 배 가까운 15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K-Pet Care Industry)이 K-Food, K-Pop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16일

태풍·폭염 피해 및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차 경남 진주 '한국배영농조합' 방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조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지자체 관계자께서는 농업인분들이 한 낮 폭염 피해를 입지않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 저희 한국배 법인 수출 농가에 대한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출로 보답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16일

제17회 경상남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 개최식 참석.

현장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학구 한농연 회장님과 경상남도 연합회 장진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전국 14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 농가 소득안정,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 별로 열리는 행사가 정부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안전한 행사되시길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21일

2023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

전시 상황 대비를 위한 을지연습이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선제 핵 공격 발언,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 등을 감안 하면 과거보다 중요성과 의미가 더욱 큼니다.

전시에도 양국을 비롯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제1임무인 만큼,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23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발표.

정부는 6~7월 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재해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호우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거나 가축 폐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 대비 약 3배 인상하여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농기계와 온실·축사 내 시설과 장비는 피해 농가당 평균 455만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피해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에 따라 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논콩 등 전락작물이 재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ha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전락작물직불금을 지급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께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23일

카타르와 스마트농업 분야의 협력 논의.

오늘 카타르 자치행정부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수베이(Abdulla bin Abdulaziz bin Turki Al Subaie) 장관과 화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 10월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예박람회에 한국 참가,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에 체결했던 스마트농업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사막형 기후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카타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25일

'I LOVE WOOD 챌린지'는 일상에서 목재를 사용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일임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챌린지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목재 사용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 목재이용 실천에 함께 동참하실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입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의 숲이 바로 목재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목재입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합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지난해 발효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에 한우 수출 1호 계약 체결 등 K-농식품 시장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에서 양국간 우호 관계를 다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27일

캄보디아 내 한우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 4대 대기업 중 하나이자 현지 물류의 70%를 담당하는 월드 브릿지(World Bridge) 그룹의 씨어 르티(Sear Rithy) 회장, 알렌 닷슨 탄(Allen Dodgson Tan) 부회장, 현지 최대 식품수입업체인 오스쿠메르(AusKhmer) 라미 대표와 면담.

월드 브릿지 그룹은 캄보디아 핵심 기업이자 캄보디아에 한우 수출을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우 판매 식당을 조사하는 등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캄보디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앞으로 한우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한우 뿐 만 아니라, KFOOD, 한국 농업 기술 등 양국 간 농업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29일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날, 캄보디아 훈 마넷(Hun Manet) 총리와 들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와는 22년 2월 RCEP에 이어 12월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돼 앞으로 교역 확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캄보디아 훈 마넷(Hun Manet) 총리와 들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 장관께 식량 안보, 농업기술, 농업ODA 등 농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상호 발전적으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29일

우리나라 한우의 캄보디아 수출 1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말레이시아에 할랄인증 한우의 첫 수출 길이 열렸는데, 이번에 캄보디아는 2015년 양국 간 검역 협상이 완료된 이후 정부는 물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8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월드 브릿지 그룹 씨어 르티(Sear Rithy) 회장은,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우가 케이팝(K-pop)만큼 유명해지도록 만들겠다고 해서 농업 분야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우가 캄보디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8월 29일

'24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으로 편성, 농업·농촌에 대한 現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농업직불금 3.1조원 확보 등 농가소득·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고, 식량안보 강화, 빈발하는 농업재해 대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 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9월 2일

9월 1일부터 2일까지 고양시 스타필드에서, 동물복지 문화축제 '놀멍 뉘하니'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추석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명절 분위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반려동물은 어엿한 가족입니다. 現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담당국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개선, 펫티켓을 실천하는 반려문화 정착,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함께 행복(One-Welfare) 하고, 변화하는 반려동물 정책도 알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9월 9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할랄식품 협력 양해각서'와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 시설 협력 파트너십 기술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올해 5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제안했던 양국 협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농업분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번 계기로 2024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의무화되는 식품 할랄인증 표시 제도에 대응하여 K-푸드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K-농기계 수출, 농업기반시설 협력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야콧 콜릴 코우마스(Yaqt Cholil Qoumas) 종교부 장관, 샤흐를 야신 림포(Prof. Dr. Syahrul Yasin Limpo) 농업부 장관을 연이어 만나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K-농업을 뿌리내리고 농업인분들과 기업에도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양국 간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9월 11일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총재와 면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성장과 식량자급 경험,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K-라이스벨트’ 사업, 부산엑스포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비롯해 농업·농촌 개발과 발전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9월 12일

추석을 앞두고, 충북 보은군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에 들러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기상재해와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사과배 작황이 예년보다 좋지 않아 농업인·소비자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농협 계약물량을 활용한 신속형 선물세트 8만개 할인 공급,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추석 성수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항근

2023년 9월 13일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 농업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농업-농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여성농업인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을 혁신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9월 14일

오늘 대통령님을 비롯해 각계 인사분들이 함께한 가운데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방소멸, 인구 감소는 국가적·시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 분야·주체가 바로 농업·농촌과 청년농업인 여러분입니다.

미래성장산업인 농업,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에서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가루쌀 라면 경진대회 시상식



정황근

2023년 9월 15일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2023 NS 푸드페스타'.

지난 4월 가루쌀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정부와 농업계, 식품업계가 '원팀'으로 가루쌀 생산-가공-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1963년 9월 15일 우리나라 최초 라면 출시 이후, 60년만에 출시된 가루쌀 라면을 맛볼 수 있었고, 열정 넘치는 대학생들이 펼치는 가루쌀 라면 요리 경연대회도 열렸습니다.

가루쌀 소비 확대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가루쌀 제품이 전세계를 누비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9월 18일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에 출연.

한우 등 K-FOOD+ 수출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2023 대한민국 인삼컨퍼런스 '인삼강국 코리아'

매일경제 | 농림축산식품부 | 금산군 | 2023년 9월 19일(화) | aT센터 5층 그랜드홀



정황근
2023년 9월 19일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 참석.

매일경제신문 주관으로 인삼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을 위해 인삼 재배 농업인,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삼산업은 최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 기상 재해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삼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시장 개척,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고려인삼의 문화와 자긍심을 지키고, 인삼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9월 20일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에 들러 농협 등 관계자분들과 추석 성수품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410억원, 수산물까지 포함하면 670억원의 역대 최대 할인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추석 성수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만난 주부께서도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감사 인사도 전해주시니 마음 한켠이 뿌듯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석 성수품과 실속형 선물세트 공급도 대폭 늘려 국민 여러분께서 풍성한 추석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9월 22일

이번 주말 나들이, 용산어린이정원 들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팔도장터가 열립니다.

현장에서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구입하고, 시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율놀이, 떡메치기 같은 전통놀이와 가루쌀 쿠키 만들기, 반려견 훈련 등 가족단위로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와 함께 하는 추석나들이 •

**용산어린이정원
팔도장터**

2023.9.22(금)~24(일) 3일간
용산어린이정원 하늘바라기길 인근

금 : 13:00~17:00 / 토 : 10:00~17:00 / 일 : 10:00~15:00

<p>👉 팔도 농축수산물</p> <p>추석 선수품, 제수용품 우수 팔도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판매</p>	<p>👉 먹거리 장터</p> <p>서울 광장시장 먹거리! 상인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빈대떡, 떡볶이, 닭강정 등</p>	<p>👉 체험 프로그램</p> <p>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전통놀이,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애완견 훈련 등</p>
--	--	---



정황근
2023년 9월 25일

오늘 서울 관악신사시장에 들러 추석 성수품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분들과 장
보러 나오신 소비자분들도 만나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추석 성수품 구입해보시면 어떨까요?

전통시장은 정부가 농축산물 30% 할인지원을 하고,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22% 저렴
합니다. 관악신사시장을 비롯해 전국 100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소비자분들께서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상인분들도 넉
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9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주시에 있는 '소망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장애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소망공동체' 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농식품부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사과, 배 등 위문품과 성금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웃분들과 우리 농축산물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과 정도 나누는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10일

지난 6월7일 대통령님과 함께 모내기를 했던 충남 부여군 남당마을의 벼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서 벼 대신 가루쌀, 콩 재배를 늘리도록 지원하고, 농업인분들께서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재배 관리에 힘써주셔서 쌀 수급은 균형 수준입니다. 덕분에 햅쌀 첫 산지가격이 80kg당 218천원 수준이고, 가루쌀 작황도 좋습니다.

앞으로 전략작물직불 지원을 확대하고 가루쌀 소비처도 늘려 쌀 수급 균형을 이뤄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 수준을 유지하여 농가소득도 안정시키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12일

오늘(10. 12.)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2021년 '여성농업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된 행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20만 여성농업인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뜨는 중요한 산업이 바로 농업이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분들에게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1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농연은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로,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 주권을 책임지고 미래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심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 직불제 등 새로 도입한 정책을 자리매김시키고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4만 후계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모든 농업인분들께서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황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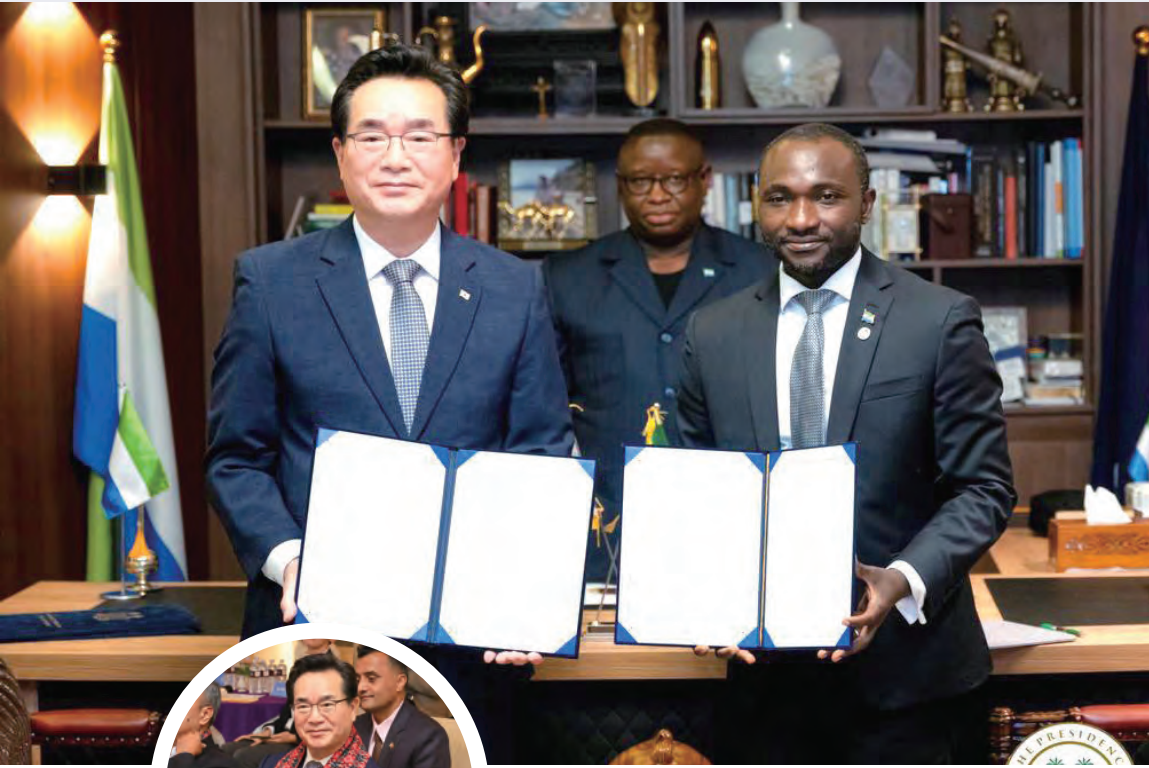
2023년 10월 14일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 특사로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합니다. 국제 우호를 증진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추진하는 '농업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양국 모두 다수확 벼 종자 및 기술 보급을 통해 식량안보에 공헌하는 'K-라이스벨트' 가입 관심 국가로, 한국과 수교(코트디부아르 1961년, 시에라리온 1962년) 후 60년 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식량안보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프리카 내 K-농업 위상을 높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17일

10월 16일, 시에라리온 줄리어스 마다 비오(Julius Maada Wonie Bio) 대통령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시에라리온은 비오 대통령 핵심사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의 우수한 쌀 종자와 농업 기술 발전 경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면담 계기에 9번째 회원국으로 시에라리온과 '케이(K)-라이스벨트'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비오 대통령님을 초청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친서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와 농업 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비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시에라리온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17일

10월 16일, 시에라리온 티모시 무사 카바(Timothy Musa Kabba)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특사로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시에라리온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고, 2024년 시에라리온 내 상주 공간 개설 등 우호교류 확대, 2024년부터 한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임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만큼 국제 위기 협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에라리온 외교부 교육기관(Foreign Service Academy)에 컴퓨터·프린터 등의 IT 물품도 기증하면서 양국 간 우호를 다지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17일

10월 17일, 시에라리온 헨리 무사 크파카(Henry Musa Kpaka) 농업식량안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지난달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KAFACI에는 아프리카 전역의 2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수확 고품질 벼 품종 개발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으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확대하고, KAFACI 가입절차도 조속히 진행해서 기술 개발 연구와 보급-지도 등 현지 지원을 착실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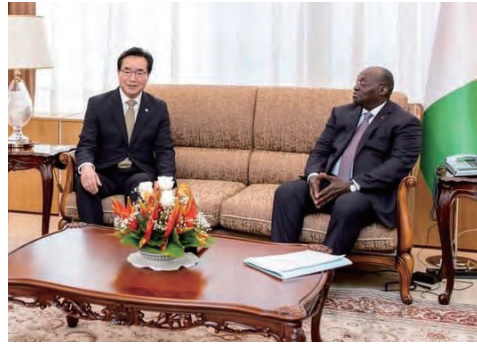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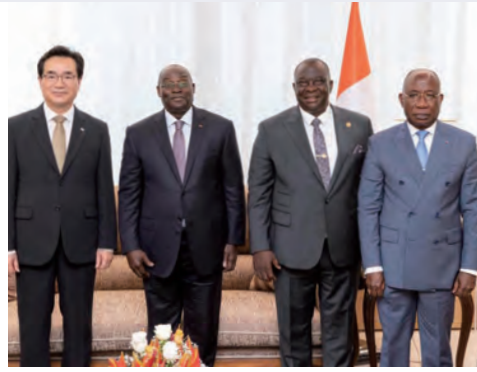
정황근

2023년 10월 18일

10월 18일, 코트디부아르 코베난 아주마니(Kobenan Kouassi Adjoumani) 농업지 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수교(1961년)한 국가로,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등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코트디부아르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자 재배 및 보급 방식 구체화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가입으로 열 번째 회원국이 된 것을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20일

10월 19일, 코트디부아르 티에모코 멜리에 코네 (Tiemoko Meyliet Kone) 부통령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했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와타라 대통령님을 초청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친서도 전달했습니다. 이어,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국 국경일(개천절)을 기념하는 현지 행사에도 참석해 친목을 다졌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최초 수교국(1961년)이자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국인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열 번째 회원국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22일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까지 충남·경기 지역 5개 시군에서 10건이 발생했고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산발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가 작년부터 백신을 사전비축하고 긴급행동지침도 미리 준비하여 국내 첫 발생에 대비해온 만큼, 현장에서도 이에 따라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발령 중인 경기·충남 지역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백신 접종과 함께, 11월 초까지 170만 마리 분량의 백신도 추가로 도입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가나 소비자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소 사육 농가와 지자체는 방제와 소독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고, 다른 축산 농가에서도 겨울철 가축질병 발생 위험 시기를 맞아 방역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24일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의 新시장 개척·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카타르를 방문합니다. 한국과 중동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적 '농업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중동은 한국 스마트팜 기술과 농산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 수출기업 또한 중동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우호 협력 증진이 기대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카타르와 식량안보 및 스마트농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 국제 무대에서 활약도 기대됩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24일

10월 24일, 카타르 알 수베이(AI-Subaie) 자치행정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카타르는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에 관심이 많은 국가입니다. '스마트농업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통해 양국 간 농업협력을 확대, 스마트농업과 농식품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스마트팜과 케이(K)-푸드가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صحراء
بيئة أف
Desert,
ment



정황근

2023년 10월 25일

10월 24일, 바데르 오마르 알 다파(Badar Omar Al Dafa)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조직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동 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에이원(A1)급 원예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장 안에 설치된 한국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한국관 조성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도 전했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고, 한국관에 각국의 많은 관람객께서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25일

10월 24일, '도하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내 스마트농업 기업과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조직위원장이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관은 '한국형 야외정원'과 '수직농장'을 준비하여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관람객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수출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촉진하게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25일

10월 25일, 한-카타르 정상회의에서 '스마트농업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서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카타르는 2019년 스마트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그간 구체적인 협력은 하지 못하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MOU 개정으로 정책 정보 교류, 스마트팜 인력 양성 등 협력을 구체화하고 국장급 공동위원회도 설립하여 양국 간 농업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연내 실무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앞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결실도 맺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27일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
카타르 순방 성과와 최근 현안인 럼피스킨 발생 및 대응 상황, 농식품 물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 뉴스 잘 봤습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28일

오늘 항공기로 긴급히 127만마리분의 소 럼피스킨백신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께 한시라도 빨리 안전하게 백신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백신을 실은 냉장탑차를 교통경찰과 순찰차가 호송하는 긴급 수송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지자체 931개 접종 지원반, 2,065명이 전국 일제 백신접종을 시작해서 11월 10일까지 소 400만 마리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산 농장에서도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유통되는 소고기와 우유는 안전하니 소비자께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정부도 현장 지원과 10월 30일 174만 마리 분 백신 추가 도입 등 럼피스킨 방역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0월 31일

오늘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 불법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중한 반려동물 및 가축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앞으로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온라인 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소비자가 안전성이 증명된 동물용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1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통령 특사로서 네팔과 농축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위해 출국합니다.

네팔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2%를 차지하는 국가이지만 농업 생산성은 낮은 편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헤퍼코리아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108마리의 '젓소 보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낙농업 기술을 전해주는 등 네팔 농업 발전에 협력해 왔습니다. 네팔은 앞으로도 농산물 품종 개량, 인적 역량 강화 등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희망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내년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 농업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에 양국 간 우호를 다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3일

11월 2일, 네팔 푸스퍼 커말 다할(Pushpa Kamal Dahal) 총리님을 만났습니다. 양국 간 농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 특사로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지지를 요청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하였습니다.

네팔은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는 국가로, 다할 총리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농학을 전공하셔서 반가웠습니다. 그간 양국은 한국의 젓소 네팔 기증, 삼성·남동발전 등 기업 투자, 근로자 파견 등 농업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총리님께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자고 말씀드렸고, 총리님께서도 네팔이 한국의 선진 기술과 발전 경험을 배워 2030년 중진국도 약목표의 토대를 마련하기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팔은 15년이나 지속된 우리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네팔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3일

11월 2일, 네팔 람 찬드라 파우델(Ram Chandra Poudel) 대통령님을 만났습니다.

한국과 네팔은 1974년 수교한 이래 개발·경제·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2007년 한-네팔 고용허가제 MOU 체결 이래 지금까지 총 9만 명 이상의 네팔 근로자가 방한,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온 네팔 청년들이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 파견되어 기술과 경험을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드렸습니다.

내년은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만남이 양국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3일

11월 2일, 네팔 베투람 부살(Beduram Bhusal) 농림축산개발부 장관을 만나 한-네팔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네팔은 국민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 현대화가 국가의 핵심 발전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네팔은 수교 이래 약 5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으며, 작년에 한국 젓소 108마리를 네팔에 보내는 등 낙농업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습니다. 오늘 농업협력 MOU 체결을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농업기술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민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네팔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 개소를 추진하는 등 네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 기술과 발전 경험을 전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식량안보를 제고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3일

11월 3일, 주네팔한국대사관과 네팔고용허가제센터 등이 주최한 ‘네팔 귀환 근로자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등 고용·노동 교류를 통하여 오랜 기간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오늘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한 귀환 근로자께서 모범적으로 근무 성실하게 일 하면서 양국 간 성공적인 고용·노동 협력과 우호 증진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네팔 고용허가제 쿼터가 계속 늘어나 현재 더 많은 네팔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이 귀환 근로자분들이 한국과 좋은 인연을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3일

11월 3일, 네팔농림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 곳은 1991년 네팔의 농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나라가 기증한 젖소를 일부 사육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팔농림연구원은 네팔 국민 먹거리를 위해 2009년부터 한국 농진청의 '농식품기술협력의체(AFACI, Asian Food & Cooperation Initiative)'에 참여하여 고품질 벼, 채소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한국에서 보낸 젖소 중 임신한 40여 마리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전문가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새로 태어날 송아지가 내년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적인 상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AFACI를 통해 네팔농림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5일

김장철을 맞아 충남 아산시 가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배방농협 하나로마트도 둘러봤습니다.

정부는 작년보다 김장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 지난 11월 2일 대책을 발표하고 배추 등 비축물량 공급, 소비자 할인지원 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김장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 관계자분들께 배추 작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드리고, 배방농협 하나로마트 판매 가격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김장채소 소비도 촉진해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11일

11월 11일은 전국의 농업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농업인의 날'입니다.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28번째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님을 비롯해 생산자·소비자 단체장, 기업인 등 각계에서 자리를 함께해서 전국의 농업인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가장 큰 규모 행사가 농업인 주도로 열리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신 농업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농업인분들께 약속드린 농업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농촌 혁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15일

오늘 연암대학교에서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및 K-seed 채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커지는 식량 위기 속에서도 육종가 및 업계 관계자들의 도전과 혁신으로 1만3천여 개 신품종을 출원하는 등 대한민국은 세계 8위 수준의 종자 강국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2023~2027)'을 통해 종자산업의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채용설명회를 계기로 유능한 인재들이 종자산업 분야에서 맘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종자, K-seed(케이 씨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FOOD
KOREAN FOOD

2023 BKF

K-FOOD 바이오투입청 수출상담회



정항근

2023년 11월 15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이 열립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식품대전은 작년보다 3배 많은 109개 기업이 참여하고, 볼거리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차세대식품, 그린바이오, 펩푸드 등 최신 푸드테크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고 가루쌀로 만든 빵과 과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고 농업과 식품산업 간 상생의 길을 여는 장이 되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16일

오늘 경상북도 상주시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과 통합 미국종합처리장(RPC)에 들러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선제적 대책으로 80kg당 16만 원 이하로 떨어졌던 쌀값을 올해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올해 쌀 수급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만, 수확기 쌀 시장에 불안감이 없도록 공공비축미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매입 쌀은 시중에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안정적인 벼 매입을 위해 지역농협에 무이자자금 3천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확기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근

2023년 11월 19일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반려동물 양육비의 40%를 차지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빈도 진료항목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지역별 진료비 공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등록, 중요 진료비 게시, 진료 항목 표준화 및 보험 가입·청구 간소화 등도 활성화되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보험 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반려인과 반려동물 업계, 협회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One-Welfare)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항근

2023년 11월 20일

‘반려동물은 가족, 입양은 시대의 펫’,
농림축산식품부와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입양캠페인 #농림축산식품부



댓글 4개 공유2회

👍 좋아요

🔍 댓글달기

🔗 공유하기



강관님 좋은 소식이에요용 감사합니다 이제는 변해야합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21일

오늘 농식품 1호 영입사원으로서 국무회의의 시작 전 총리님과 국무위원들께 하동 청년 농업인들이 만든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고, 함께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동군은 귀농한 청년 창업인들이 지역 농산물을 매입해 배즙·과일칩·양갱·맛밤 등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고, 벤처농업협회도 활발히 운영하는 모범적인 지역입니다.

하동군을 비롯해 전국에서 지역 농업인분들과 상생하면서 열정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 끌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만든 제품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회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엑스포

2023. 11. 22.(수) - 25.(토)

코엑스 D홀



정황근

2023년 11월 22일

오늘 '2023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푸드테크 산업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농업과의 상생 기회도 무궁무진합니다. 정부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63억 원 증가한 639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연구개발 지원 확대,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푸드테크 전문가, 업계가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22일

매년 11월 22일은 세계문화 유산인 김장 문화를 계승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김치의 날'입니다.

2013년 우리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지난 10년간 김치의 문화경제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93개 국가에 김치를 수출하는데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4개국 13개 지역에서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등 이제 김치는 대한민국의 전통 식품을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인 김치와 김장문화를 이어가고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22일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비롯한 성남·고양점에서 8개 식품업체가 개발한 과자라면·칼국수·빵 등 16종의 가루쌀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루쌀은 '글루텐 프리'라 건강에 좋고, 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수입 밀가루 10%를 대체하여 우리 식량주권을 지킬 '신의 선물'입니다. 이번 판매전을 계기로, 더 다양한 가루쌀 가공제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판매되고, 가정에서도 튀김이나 부침가루로 손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쌀 가공제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23일

지난 11월 21일 국무회의 시작 전, 하동 청년 농업인들이 만든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전국의 우수한 농식품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 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지리산,섬진강,남해바다가 키운 하동보물들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 존경합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장관님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27일

오늘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는 그간 지자체·봉사 단체 등이 각각 추진하던 전국의 김장행사를 하나로 모았는데, 자원봉사자 및 각 지역의 어르신·외국인 근로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서 나눔과 봉사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장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며,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화행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김장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28일

오늘은 젊은 직원들과 치맥 데이!

MZ세대 29명과 멘토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혁신 어벤처스(농벤처스)'와 조직문화 혁신, 세대 간 소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제 공직 경험담도 들려주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 업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통하겠습니다.



2023년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간담회

장소 미듬영농조합법인 공간미학 일자 2023년 11월 29일(수)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협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정황근

2023년 11월 29일

오늘 경기도 평택시에서 가루쌀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미듬영농조합에서 소비자·생산자 단체장님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9년 만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자리라 매우 뜻깊었고, 농식품 물가 안정과 정부 정책, 가루쌀 소비 촉진 협력 방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는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1월 30일

농산물 디지털 유통 혁신의 이정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오늘 세계 최초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역사적인 1호 거래로 전남서남부채소농협과 더본코리아 간 양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의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유통 단계와 비용을 줄여 생산자,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천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도매 유통비용도 7천억 원을 줄이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2월 4일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스타벅스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과 외식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간 스타벅스는 이천 쌀, 문경 오미자, 하동 녹차, 공주 밤 등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시판해 왔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중 가루쌀과 국산 과일로 만든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업과 기업, 지역 사회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K-푸드가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2월 5일

어제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4건, 미국·유럽 등에서도 AI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중수본은 어제 오전 H5형 항원을 확인하자마자 전국 오리농장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AI 발생 차단은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에 충실하고,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도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해당 언어로 된 교육·홍보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방역 부서와 재난 담당 부서가 힘을 합쳐 재난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장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선제적 방역으로 가금류 농가에 AI의 큰 발생과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이해:
이슬람 문화,
팔레스타인, 정세

مكتبة
الاجعون



농식품부 브라운백 미팅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1
박현도(서강대)



정황근

2023년 12월 7일

오늘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교수님을 모시고 농식품부 직원들과 함께 브라운백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님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당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에 대한 중동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동 지역 공부를 하기 위해 시작된 후 다섯 번째 모임입니다. 저도 지난 10월 대통령님과 카타르를 방문하면서, 중동 국가는 곡물이 아니라 신선채소가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을 새롭게 아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동을 이해하고, 케이-푸드 플러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2월 8일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20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단원들이 향후 1년간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하
게 됩니다.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높아진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려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
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농업'은 단순한 '농사'
가 아니라, 생산·유통, 외식·식품, 푸드테크, 농자재 등 무궁무진한 미래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게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2월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유관·소속 공공기관장님들과 전북 익산시 육군 제7공수 특전여단에 다녀왔습니다.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점에서 군과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 제공을 통해 군 장병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2월 13일

오늘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청년농업인분들을 만나고 수상자분들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미래입니다. 현장의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비록 전공, 이력, 하는 일은 달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의 변화와 농업·농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세대를 이어가고, 농업이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황근

2023년 12월 14일

12월 3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국내 첫 발생한 이후 총 10건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번 AI는 H5N1과 H5N6, 2개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했고 빠르게 확산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최근 산란계 중심으로 AI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집중 관리 중인 대규모·계열사 농가에 비해 중소규모 개별 농가는 관심과 관리의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국민 불편, 계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현장 점검·단속을 강화해 미흡 농가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가금 농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계열사는 책임감 있게 계약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교육·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감염원을 옮기는 철새 도래지 방문과 가금류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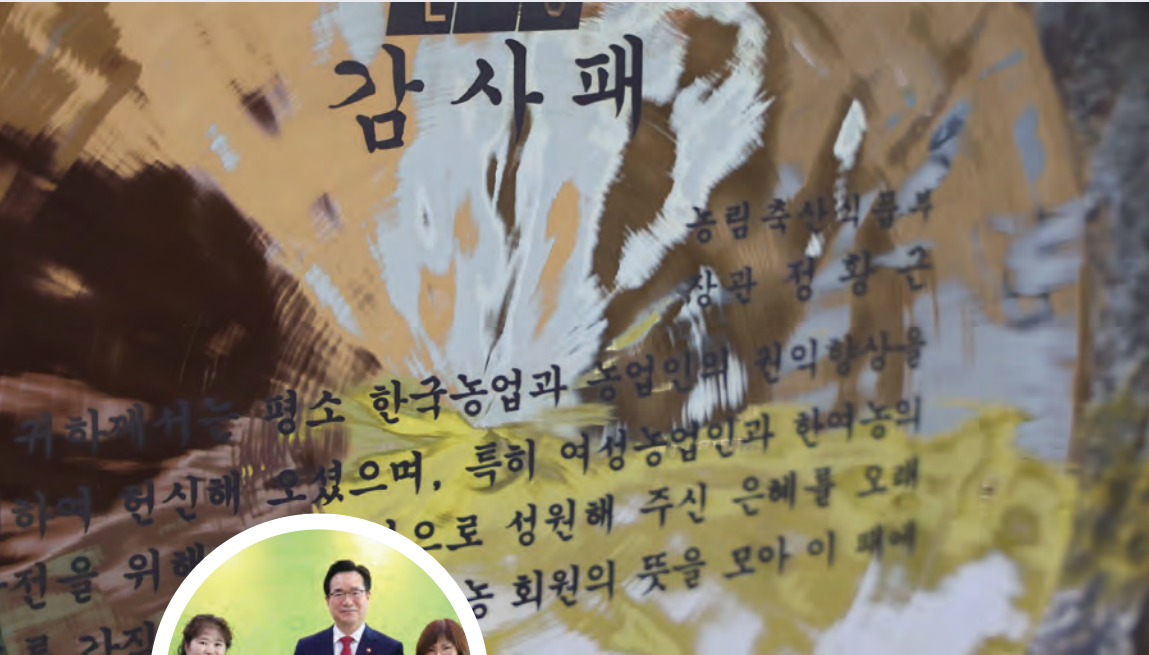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하여 축산 농가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정황근

2023년 12월 18일

오늘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에 처음에는 감사패를 정중히 사양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할 일을 응원해주시는 의미라 생각하여 7만여 한 여농 회원님의 마음을 감사히 받기로 하였습니다.

격려해주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댓글 4개 공유2회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사업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황근

2023년 12월 19일

오늘 처음으로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매운맛 라면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 음료·주류 수출 확대에 기여한 '롯데칠성음료'·'하이트진로', 북미시장으로 중소형 트랙터를 수출한 '대동'이 1억불 이상 수출탑인 대상을 받았고 총 50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드리고, 내년 수출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세계 6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농식품 수출을 통해 '제2의 수출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농식품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 photograph of an elderly man with grey hair and glasses, wearing a dark long-sleeved jacket, kneeling in a field of green leafy crops. He is looking down at the plants. The background shows rolling hills and mountains under a clear sky. The entire image has a warm, orange-toned overlay.

제5장. 현장 축사 모음
심 없이 달려온
600일

농정원 개원 10주년

2022.6.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종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정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11년 농식품부에서 농촌정책국장으로 일할 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농정원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농정원이 벌써 10주년이 됐다니,

감회가 새롭고 무척 기쁩니다.

그동안 ‘농정원’은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농업인, 소비자,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농업 전문 인재와 청년농을 키우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도농 상생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또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튼튼한 농업·활기찬 농촌·잘사는 농업인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농정원'도
한국이 진정한 농업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끌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농정원의 경험과 역량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 밝은 미래를 열어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힘찬 엔진이 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TV 개국 10주년 포럼

2022.6.14.

‘매일경제TV 개국 10주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해주신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님과
매일경제TV 장용수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님, 정운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2012년에 개국한 매일경제TV는
우리 경제와 호흡을 함께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매년 개국 포럼을 열어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루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도 해왔습니다.
지난 2010년, 매일경제신문 주관으로
‘아그리젠토 코리아’란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올해 다시 한번,
매일경제TV가 개국 10주년을 맞이해서
‘푸드테크 혁명, 어게인 아그리젠토 코리아’로
포럼의 주제를 정해서,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받는 푸드테크를 통해
우리 농식품 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입니다.

식품산업 역시,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더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 중심에 푸드테크(Food tech)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건강이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을 제공하고,
세포배양을 통해 새로운 식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식품기업의 연구·개발을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육성하겠습니다.

나아가,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대안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을
구체화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푸드테크가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대환 회장님 이하 우리 매경 식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농어업상생발전포럼

2022.6.26.

제2차 농어업상생발전포럼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해주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님과
농어업상생발전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하영제 의원님,
안병길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은 지난 20대 대선기간 동안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농정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농촌은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농업·농촌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요 작물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마련하고
밀·콩의 국내 비축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엘리베이터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모작이 가능한 쌀가루용 가루쌀을 이용하여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고, 쌀 수급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을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부터 농지·자금·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과 유통, 가공, 소비 등 농산업 밸류체인을
연계하고 디지털화하여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종자, 스마트 농자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의 분야는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촌을 국민을 위한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촌의 주거, 산업, 생활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농식품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인, 기업, 소비자, 연구자, 학교와 기관이
혁신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현장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자금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기해주신 의견들은

새정부 국정과제 실천과 규제개혁 과정에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출범식

2022.6.30.

오늘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이기원 교수님, 안병익 대표님, 김민수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최근 우리 식품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과 기후 위기 영향으로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농식품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농업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먹거리의 품질을 개선하고
개인의 수요에 맞춘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농식품산업을
푸드테크 기반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식품소재 발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식품기업의 연구·개발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키우겠습니다.

푸드테크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의 스타트업,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가 힘을 합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해안을 귀담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푸드테크협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60주년 기념 행사

2022.7.8.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1962년 창립 이후,
한결같은 헌신과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기계화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밑거름이었고,
농기계 산업의 발전으로
국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0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오신
조합원과 농기계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지금 농업·농촌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농촌은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특히, 농기계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농업, 정밀농업을 선도할 핵심 분야입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기계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 연구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전기·수소 농기계 등의 연구개발로
정밀농업과 탄소중립의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발농업 기계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과종·정식·수확 단계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고령농·소농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농기계 산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6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이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선정 시·군 농촌협약식 개최

2022.7.15.

오늘 농식품부와 20개 지자체가 함께 모여
농촌 협약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난 1년간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애써주신 시장·군수님과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농촌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생활환경과 경관이 훼손되어
'농촌다움'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적 도전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촘촘하게 국정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쌀에 편중된 식량 자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밀과 콩 등 주요 수입 곡물의 자급기반 확충, 비축 확대,
해외농업개발과 국내 반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모작이 가능한 쌀가루용 가루쌀을 활용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고 쌀 수급 균형도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농지와 자금, 창업컨설팅, 보금자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생산·유통·가공·소비로 이어지는 농산업의 밸류체인을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현장 규제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넷째,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부럽지 않은 농촌,
유럽의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농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농촌공간계획법(‘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마련해
난개발을 막고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청년농업인 육성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튼튼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성장과 발전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촌이 창의적인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농업·농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제도·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2022.7.29.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가
우리 부에서 개최되도록 협력해 주신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부·처·청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혁신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 어벤저스와
지자체 주니어보드로 활약하고 계신
젊은 세대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변화를 기회 삼아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혁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 요구에 맞게
농업이 능동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농식품부는 정부혁신의 선두에 서 왔습니다.

저 또한 ‘혁신인사기획관’ 시절에,
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22개 부처 중 최하위권에 머물던 농식품부(18위)를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개인별 통합성과 관리시스템(EQ System)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균형 인사를 정착시켜
2006년 우수 부처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또, 최근 4년 연속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이상 평가를 받은 유일한 부처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는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과를 낸 부서나 직원에게는 과감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부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의 첫 번째 발표 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도 우리 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거래소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식품 유통의 문제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책 혁신사례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우리 부 젊은 직원들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혁신 활동과 성과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가
국민만 바라보며 정부 업무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여러분의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예천곤충축제 개막식

2022.8.6.

‘2022 예천곤충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16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6년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정성을 다해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경상북도와 예천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김형동’ 의원님,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예천은
이제 ‘곤충 도시’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흘간 펼쳐질 곤충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행사를 넘어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빈 여러분,

곤충산업은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성장 산업입니다.

세계 곤충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 원에 달하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곤충을 ‘작은 가축’이라고 부르면서
오래전부터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해왔습니다.

저도 농촌진흥청장 재직 당시,
곤충산업을 ‘TOP5 융복합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고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껏 학습과 애완용에 머물렀던 곤충자원이
이제는 대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의약 소재 등으로
그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곤충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곤충자원의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에 투자하고, 낡은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200억 원을 과감히 투자해 곤충원료 생산과 가공, 유통 시설을 집적화한 거점단지를 이곳, 예천에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귀중한 문화유산과 곤충, 바이오 등 생명자원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예천곤충축제'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2022.8.9.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농업! 한농연과 함께!’라는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학구 한농연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홍문표 의원님, 하영제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님과
도의회 조길영 의장님, 김동일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농연은 1987년, 후계농업인들이 큰 꿈을 갖고 창립해
현재 1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 농업인단체입니다.

35년 동안,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해 묵묵히 한길을 걸어오신
한농연 회원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서 다시 뵈니,
마치 오랜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공직을 거치면서 한농연 여러분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앞장서 노력하시던
회원 여러분의 열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농업·농촌이 여러 위기를 이겨내고,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 복잡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면서
농촌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농업·농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힘차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식량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쌀가루용 가루쌀 산업화를 통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일부 대체
하고, 쌀과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을 확대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해외공급망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직불금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복구비를 인상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확대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부터,
스마트팜, 푸드테크, 농식품 온라인 거래까지
농업 전 단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 3만 명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부터 농지, 자금, 주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기초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여러분,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35년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슬기롭게 이겨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한 농업 선진국이 되고,

농업인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들어와
새로운 꿈을 꾸고 마음껏 도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 농업·농촌은
변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부터 현장에 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힘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농연이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정부와 함께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국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문화공간 개관식

2022.8.30.

한식문화공간, '이음'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개관까지 애를 많이 써주신,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님과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
양대수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해주신
한식진흥원 역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식, 나아가 K-푸드는
지금,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계인들은 '한국' 하면 K-POP 다음으로
'한식'을 가장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콘텐츠 글로벌 인기도'에서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한류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한식의 높아진 위상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은 113억 7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딸기·포도 등 농수산물과
김치·인삼 같은 전통식품이 수출을 이끌며
우리 농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식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성 연구 외에도
전통주, 한식과 관련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2015년 ‘전통주 갤러리’,
2016년 ‘한식문화관’과 ‘식품명인체험홍보관’을 각각 조성해
국민 여러분과 외국인들께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3개 시설을
한국의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 북촌으로 이전해
한식문화공간, ‘이음’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음식과 술을 포함한
한식 문화 전반에 대한 전시·체험·홍보·교육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식문화공간’이 한식을 전 세계로 더 널리 알리는데
훌륭한 거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한식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전통식품, 전통주를 망라한
한국 식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맛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홍보·마케팅,
식품명인의 위상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식문화공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민간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외공관의 한식 체험과 전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유명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이라는 전시관 명칭처럼
한식으로 문화를, 세대를, 세계를 이어주는
훌륭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식문화공간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

2022.9.15.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가
5년 만(17년 이후)에 다시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축협 조합장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님,
'이상문' 전국 축협 운영협의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병우' 축산경제대표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사료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애쓰시는
현장의 축산인들과 전국 축협 조합장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시장개방 확대 위기에도
품질경쟁력과 차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전체 농림업생산액(52.2조 원)의
약 40%(20.4조 원)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가축질병 등
많은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축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침, 오늘 회의 주제가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구현’입니다.
축산업 인식 전환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조합장님들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자원화 등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축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탄소 감축을 촉진하겠습니다.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확산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축산물 생산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도 기존보다 약 1.6배 확대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반영해,
축산분야 실질 예산은 사상 최고 수준인
1조 7,10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제안한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낙농가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쓰신
낙농 관련 조합장님들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축산 현안 해결에 있어서
조합장님 여러분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어떤 형식으로든 자주 만나며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축산농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국의 축협 조합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축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2022.9.15.

풍요로운 자연을 간직한 땅끝마을 해남에서 오늘 ‘한국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윤재갑’ 의원님,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이은만’ 회장님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명현관’ 해남군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식량 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아홉 분께 큰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 우리 농업인들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농업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께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피해 농업인께서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쌀 전업농 여러분!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쌀값은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힘이자 농업인의 자존심입니다. 이러한 쌀값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져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인 총 37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더 빠르게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 여건, 재고, 쌀 소비 동향 등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10만 톤 확대해 총 45만 톤을 매입하고, 기존보다 매입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산 쌀 10만 톤을 조기에 시장 격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벼농사가 풍년이면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가 고착화되고 쌀값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량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자동시장 격리제도’가 필요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밀·콩·가루쌀 등 자급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신규로 지급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 수급 안정도 달성할 것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720억 원을 반영했고, 2027년에는 2천45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공전용 품종인 가루쌀로 수입 밀을 대체하여 2026년까지 구조적인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하고, 계속 하락하는 자급률도 상승세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쌀 전업농 여러분!

쌀은 국가의 근간이고 여러분은 쌀 농업을 지키는 기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주체이자, 정부 쌀 정책의 파트너로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심포지엄

2022.10.6.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을 축하하는 심포지엄과
‘제18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한국종자협회 ‘임재봉’ 회장님과
주제발표를 맡아주실
UPOV 前 총회 의장 ‘최근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주)농우바이오 박동섭 대표님, 아시아종묘 류경오 대표님,
LG팜한농 이뉴진 대표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내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김용재 (주)파트너종묘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해주신
아시아 14개국 종자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1961년 설립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은
식물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 보호와 국제협력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간 육종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1만2,500여 신품종이 출원됐고,
9,179개 품종이 등록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 78개 회원국 중
여덟 번째로 많은 품종보호 출원 건수를 기록하면서
종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 종자 수출액은
6,100만 달러에 이르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육종가와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배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 농사에 뿌릴 씨앗은 남겨둔다는 뜻
입니다.

그만큼 종자는 농업의 근본이며
농부에게는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최근엔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위기가 커지면서
종자산업이 식량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축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세계 종자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확대하고,
우수한 유전자원 확보와 품종보호권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육종가를 지원하여,
우수품종을 육성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 분야 종자 개발 인프라가 될
민간육종연구단지,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종자산업진흥센터 등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1,500여 명의 차세대 종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지난 10년 동안 총 4천911억 원의 예산을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1,000여 개 우수품종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이끌어갈
‘종자산업 육성 5개년(2023~2027)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국내 종자기업의 규모화와
연구개발(R&D)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할 것입니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하면서
부가가치와 잠재성이 높은 첨단 산업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이 모여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학계와 종자관련 업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감으로써
종자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

2022.10.13.

‘2022 국제종자박람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
우리 농업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먼저,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준비해주신
전라북도와 김제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비롯한
종자 업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해주신
김제 시민과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종자박람회는
한국 품종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국내 종자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종자, 세계를 움직이다”입니다.

종자를 통해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할
대안과 희망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봅니다.

최근 주요국의 곡물 작황과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종자산업은 글로벌 기업간 합병을 통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강대국으로 집중됐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육종 기술로
종자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육종가들의 신품종 개발 기간은
단축하는 반면

상품화율은 대폭 높이겠습니다.
또한, 품종개발에 필요한 산업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이곳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유전자분석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종자가공센터도
2026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고품질 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을 촉진할 법적 인프라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종자기업의 규모화와
연구개발(R&D)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앞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이끌어갈
제3차‘종자산업 육성 5개년(2023~2027)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종자산업과 수출에 공을 들이는 것은
식량안보의 근본이고,
농업 분야의 반도체로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자 강국 실현을 위해 산학연 관계자와
종자 관련 업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2 국제종자박람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2022.10.18.

지난해 ‘여성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오늘 역사적인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뜻깊은 기념식을 준비해주신
7개 여성 농업인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님,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와 함께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여성농업인 여러분,

우리 농업은 농촌융복합산업과 스마트 농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 발전과 혁신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영역뿐만 아니라 농외소득 활동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농촌을 행복한 삶터이자 일터로 만들며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이웃사랑 나눔행사’는
여성농업인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력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주체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농업인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과
보육 여건 개선, 문화·여가활동 확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여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여성 등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여성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힘차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과 창업 지원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성농업인 여러분,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께서
우리 농업을 위해 헌신해 오셨고,

대한민국 농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이자 창작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을 지켜온 여성농업인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께서 꿈을 활짝 펼 수 있도록
정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농업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고 계신
모든 여성농업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2022.11.3.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정책콘서트는
정부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모범사례를 선정하는 귀한 소통의 장입니다.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해주신
국민 평가단,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각 부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국정 비전으로 삼고,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직원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가 정부혁신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손꼽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농식품 정책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 농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식량 안보 위기는 물론,
기후변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밀·콩 등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가루쌀 산업화 등
식량안보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5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 될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농촌 난개발을 막고,
생활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농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게 될 혁신정책은
본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100여 가지의 사례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7건의 사례입니다.

7건의 혁신사례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농식품 정책콘서트'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2022.11.2.

「2022년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인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주한대사님들과 해외 바이어
농기계 업체 대표님 등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해주신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님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님
하승봉 농민신문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과거 박람회에 비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첨단 농기계도 많이 전시되어
농기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농촌에서 농기계 없는 농업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기계자재 발전은 큰 진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농업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농기계자재 수출액은
약 1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우리 농기계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농작업은 농기계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간 인수합병 및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한 농기계자재 업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스마트 농기계 연구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도 가속화 해야 합니다.

정부도 스마트농기계 등 첨단 농기계 개발과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밭농업 기계화 연구 등에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된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생산 시범단지를 내년에 완공하고,
자율주행, 친환경 농기계의 현장 테스트를 위한
100ha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농기계 및 자재 발전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시장도 협소했던 척박한 여건에서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농기계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 참여한
443개 업체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이번 박람회가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려
수출이 더욱 확대되고 농기계자재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정부도 농업인과 농기계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인산농협 스마트 APC 준공식

2022.11.3.

오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산 만인산농협이 AI를 접목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하는 날입니다. 산지 농산물 유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힘써주신 박범인 금산군수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김춘진 사장님, 농협경제지주 우성태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만인산농협 전순구 조합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인산농협의 가장 큰 자량은 ‘추부깻잎’입니다. 2000년대 초, ‘추부깻잎’ 유통으로 출범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현재 전국 31개 농협과 협력하여 130여 개 채소류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올해 연 매출 5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권 채소류 물류의 중심이자 스마트 APC 준공으로 자동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지 유통의 선두주자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정부도 만인산농협의 APC 스마트화 사례를 전국 농협과 각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것입니다.

조합장님께서도 교육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흔쾌히 하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우리 농업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 부문에서는 스마트팜의 확산을 통해서 농업의 정밀화·과학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유통 분야에서도

산지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먼저, ICT 기반 유통시스템 전환에 맞추어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스마트 APC 확산을 통해

산지 유통을 규모화·전문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보장하고,

유통인에게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농업인이 직거래와 e-커머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온라인센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혁신은
생산자인 농업인과 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때 가능합니다.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 유통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산 만인산농협의 스마트 APC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7회 농업인의 날

2022.11.11.

올해로 스물일곱 번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을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념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최춘식 의원님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신
160명의 농업인께서 영예로운 상을 받으셨습니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으신 양승호 해평농장 대표님,
은탑산업훈장 받으신 김종우 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제주지회장님,
동탑산업훈장 받으신 안경구 조은종묘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에게 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0만 농업인 모두가 수상 자격을 갖추셨지만,
더 많은 분들께 수상의 영예를 드리지 못해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여든여덟 번이나 손이 가는 게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은 인내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 비료·사료 등 농자재값 상승이 겹치면서
농업인 여러분께 힘든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여러분의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서도
우리 국민은 식탁에 대한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하게 농업·농촌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농정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자궁심을 갖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실 수 있도록
힘든 재정 여건 하에서도
전례없는 최선의 지원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식인 쌀 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9월,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물량인 총 90만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과 과감한 지원으로 쌀값은 차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외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비료가격 차액보전 1,800억원과 1조 5천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3,000억원을 증액하여 56만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반적 긴축 재정 기조 하에서도 내년도 농식품 예산을 2.4%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유류비 상승 등 농업인 여러분의 경영을 압박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과 같은 과제가 산적하지만,
농업인 여러분의 땀으로 일구어온 우리 농업·농촌은
이러한 위기를 딛고 크게 재도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새 정부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먹거리를 잘 지키면서 식량안보를 튼튼히 해 나가
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중·소 농가를 위한 작은 안전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쌀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이루어 나가고
해외 곡물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우리 농업을 대
대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농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정착 등 각 단계에 맞추어
농지·자금·주거·교육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 등 전 과정에
ICT, BT, AI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우리 농업을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푸드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농업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튼튼히 하여 농업인 여러분
께서 편안하게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확대, 재해 복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등에도 농가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방역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꾸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의 난개발을 해소하고,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일자리, 주거,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살아도 의료·문화·교육·보육 등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서비스 공급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농업·농촌은 기회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220만 농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대한민국식품대전

2022.11.16.

오늘, '2022년 대한민국식품대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외식 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식품산업인 여러분!

국내 식품산업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8%의 성장률을 보이며
57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K-푸드는 K-팝, K-드라마와 함께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문화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기준, 7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작년 보다 6% 상승했습니다.

우리 식품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 식품대전의 주제는
‘푸드테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 건강과 환경 중시, 비대면 확산 등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트렌드가
우리 식품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푸드테크가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우리 일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로봇이 만드는 치킨과 커피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새로운 식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넓히고,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에서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푸드테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농식품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연구개발 확대,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규제개선을 담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식품기업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 푸드테크 산업의 흐름을 읽고,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투자유치와 수출 확대의 결실을 맺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식품대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2022.11.23.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가장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축산인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료가격 폭등, 가축질병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 해 동안 애써주신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들어 육류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소·돼지·닭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56.1kg으로
역대 최대 소비량을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과 비슷)

축산업 생산액도 그에 걸맞게
전체 농업생산액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농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산업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입니다.

그 바탕에는 축산물등급제도의 역할이 컸습니다.

축산물의 품질 지표를 제시해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 관련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축산물 유통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악취·분뇨 등 환경문제, 반복되는 수급 불안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축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유통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개최와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5회 농림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

2022.11.28.

제25회 농림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먼저, 산업포장을 수상하신 대동의 감병우 상무님,
종근당건강의 김병용 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해주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분야 과학기술은
 괘목할만한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를 개발해
주곡인 쌀의 자급화를 달성했습니다.

일년내내 신선한 채소와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기술 발전의 덕분입니다.

식품 가공·제조 기술의 발전은 국내 식품산업이 약 570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식품 산업은 그동안의 성취만큼이나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꾸준히 높여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건강식 선호 등 소비자들의 식문화 트렌드에 맞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농식품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변화와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농업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산업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더욱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유망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상품화 지원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 대책과 농업·식품 분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과학자 여러분의 연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식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산업이 될 것
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

2022.12.15.

농업계의 오랜 바램이었던
‘국립농업박물관’이 오늘 드디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농업·농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곳은 날씨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혜련, 김영진, 김승원 의원님,
염태영 부지사님과 이재준 시장님,
농업계와 박물관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님 등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
설립 위원 및 자문 위원 여러분,

건설 및 시공 관계자, 오늘 표창을 받으시는 공로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농업박물관이 자리하게 된 수원은 우리 농업 발전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입니다.

조선 정조 때는 과학영농의 중심지로
저수농법과 퇴비를 활용한 국영농장이 시범 운영됐습니다.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저수지‘축만제’등
여러 농업 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 자리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근대화를 이끈
농촌진흥청이 몇 년 전까지 있던 곳입니다.

한국 농업의 역사를 대표하는 이곳 수원에
‘국립농업박물관’이 자리잡게 된 만큼
앞으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여
안정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직불금을 5조원까지 늘리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30년 후 국립농업박물관에 소개되었을 때
후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께서도
농식품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립농업박물관이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하루 빨리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즐겨 찾는
세계 최고의 농업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팔로 101마리 젓소 보내기 환송식

2022.12.22.

오늘 우리 젓소 101마리가 네팔에 갑니다.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님,
젓소를 기부해주신 낙농가분들과 후원자 여러분,
네팔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네팔관광청 케이피 시토올라 한국사무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헤퍼코리아' 이해원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이루어낸 이번 사업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우리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결실을 맺고,
이제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69년 우리나라는 독일의 물적·기술적 도움으로 젖소를 도입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전신인 성환 국립종축장과 현재의 안성 팜랜드 자리에 있던 한독낙농시범목장에서 젖소 사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현대식 낙농업이 출발했고, 우유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양공급원이 되어왔습니다.

2년전 작고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그 당시 국립종축장에 재직하시며
독일에서 차관으로 제공한 젖소 사육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오늘 이 행사가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아마 과거 헤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이번 젖소 지원에 동참해주신 이재복님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젖소 1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10리터도 안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낙농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젖소 1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은 33리터를 상회하며,
세계 5위 수준의 생산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국내 낙농업의 연간 생산액은 2.2조원으로
전체 농림축산품목 중 6번째로 높은 품목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품종을 개발하고
젖소 검정사업을 추진하는 등
낙농 발전을 위해 정부와 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 정부는 젖소를 단순히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해 현지의 농가 교육,
젖소 전문가 파견, 모바일앱을 통한 사양관리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과 낙농 기술력이
네팔 낙농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양국 우호 증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101마리 젖소가
네팔 국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회 농업전망대회

2023.1.18.

먼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농업전망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전망대회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와 이슈를 조명하고,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올해 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농업인,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농정 미션은
식량주권 확보와 미래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선, 역대 최대 물량인
쌀 90만 톤을 선제적으로 격리해

수확기 쌀값을 상당 수준 회복·안정시켰습니다.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한
비료, 사료, 면세유를 지원해
과도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현장의 개선 요구가 컸던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새로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해 88.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도
우리가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고령화와 시장개방 확대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산업의 디지털화와 첨단화를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대통령과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농촌이 새롭게 혁신해야만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고,
기업과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올해 농식품부는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4가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굳건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전문생산단지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콩·가루쌀 생산을 늘려
그동안 낮아지지만 하던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또한, 밀·콩 등 주요 곡물 비축 확대,
국내기업의 해외 곡물엘리베이터 확보 지원 등
국내외 공급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과 함께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스마트팜, 농기계 등
전후방 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과
동남아 농기계 지원 등 ODA도 확대하여
농업기술을 통해 국격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리기 위해,
조속히 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료·사료·유류 등
농자재 비용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공공형 계절 근로를 대폭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하여
도시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농업·농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은 높이고, 소비자 가격은 낮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민과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을 조성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법’ 제정을 완료하고,
지자체의 계획을 관련 부처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어디서나 기본적인 의료, 돌봄, 문화,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해 말, 10년 만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17조 3,574억 원을 확보하여
처음으로 17조원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농업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부터 새 정부 국정과제가 충실히 추진되어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6회 농업전망대회’를 축하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농촌의 혁신을 위한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

2023.1.26.

오늘 'K-Food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가 출범합니다.

뜻깊은 날을 함께 해주시는
기업대표분들과 수출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K-농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수출성과를 거두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물류대란 상황에서도
우리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치인 88억 3천만불을 기록했습니다.

농기계는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16억불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팜은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미료·농약·종자도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는 K-농업이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비록 올해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전망으로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출범하는 'K-Food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입니다.

장관인 제가 본부장을 맡아
수출 최전선에서 직접 뛰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모이신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계, 동물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의 수출이 130억불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출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통합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수출국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콜드체인을 확대하겠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등에
해외 우수 한식당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한식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 농식품 수출의 저변을 확장하겠습니다.

지역별 기후·환경에 특화된 전략을 통해

중동·동남아 지역으로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400억 원 규모의 수출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과 함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출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관계자 여러분,
우리 농업도 충분히 수출전략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두가 ‘원 팀’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은다면,
수출 목표 130억불 이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K-Food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본부장으로서
현장을 더욱 자주 다니면서 보고 들겠습니다.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는 없는지
작은 것까지 면밀히 살피고,
최대한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멈추지 않은 농업 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는 여기 모이신 수출관계자 모두 맡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농대 제24회 학위수여식

2023.2.17.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4회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광스러운 학위를 받고
어엿한 농어업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지금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농어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어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는
농어업의 영역을 한층 넓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국내 굴지 기업의 연구원이었던 청년은
스마트팜을 창업해 연간 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창업하여
연간 1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를 열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농어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이
농어업을 바꾸고 농어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전문성과 창의성,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더 크게’ 꿈꾸고, ‘더 높게’ 도전할 수 있도록
춤춤하게 지원하고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기존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년간 월평균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스마트팜 창업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해 청년들의 새출발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농지도 원활하게 공급하는 한편,
필요한 설비를 갖추 수 있도록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판로와 마케팅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의 미래인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생활 인프라도 확충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농어업은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한 농기계회사의 CEO가
사상 처음으로 기조 강연을 맡았습니다.
바야흐로 스마트 농어업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특히,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20~30대 청년들의 창업이 활발합니다.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선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은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 수출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스마트 팜, 농자재 등 전후방의 연관산업도
수출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어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사회를 향한 긴 여정에 젊은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여러분이 가진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시작에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식

2023.3.2.

우선, 오늘 신지식농업인 장을 받으신 아홉 분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주신
신지식농업인회 ‘원용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0년간 맛있고 건강한 토마토를 생산하며
스마트팜 기술혁신에 앞장서 오신 신현재님,

감자빵을 개발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 농업인, 최동녀님

발효유와 발효사료 기술을 양돈농가에 보급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송일환님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마찬가지로 신지식농업인 선정의 영예를 안으신
최승일님, 서형원님, 유성진님,

이정원님, 한상진님, 김성중님께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지식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K-푸드 열풍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ICT, BT 등 첨단기술을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접목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이
농업을 바꾸고 농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신지식농업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농업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혁신하여
신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농업경영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전문가이신 신지식농업인 여러분이
청년 농업인들의 멘토가 되어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농업·농촌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농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농업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신지식농업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흙의 날’ 기념식

2023.3.10.

매년 3월 11일은 ‘흙의 날’입니다.
농업의 근간이자 우리 삶의 터전인
흙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 8주년을 맞이한 ‘흙의 날’ 주제는
‘스마트하게 토닥토닥(土.doc.土.doc.)’입니다.

한자로 흙 토(土)자에
영어로 의사라는 뜻의 ‘doctor’를 합성해서 토닥토닥,
우리 모두, 흙을 살리는 의사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흙을 살리기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내빈 여러분!

전통적으로 건강한 흙은
작물의 생산성을 유지시켜 주고,
물과 양분의 순환, 탄소저장과 기후조절은 물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에 삶의 터전을 제공해
생태계를 유지해 주고,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흙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토양관리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는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며
고도의 환경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도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기술을 결합해
화학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작물을 건강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토양관리도
계측 센서를 땅에 묻고 데이터를 받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작동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정부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토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토양을 분석하거나
시비처방서 발급 등 토양을 진단·관리하게 하고,
적정 비료사용과 토양개량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토양 성분을 빠르게 분석하는
‘신속토양분석법’ 기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간편하게
비료 사용과 토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작물별 적정 시비량과 친환경적인 토양관리 방법을
농가에 지도하는 서비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국민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의 흙 관리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 외에도
건강한 흙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소비 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흙의 날'이 흙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 활성화 전략 세미나

2023.3.22.

‘수출 확대가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는 일념으로,
오늘 수출 상생협력 협약식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해외건설협회,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협회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함께 해주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과 국방부 신범철 차관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건설, 스마트팜, 방산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수출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과 건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없다.”

세계 최대 첨단기술 전시장으로 꼽히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올해 기조 발표를 맡은 미국 농기계회사 ‘존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한 말입니다.

그는 또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며,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농업생산량을
현재보다 50%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과 세계 식량 공급 문제의 해답으로
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막이나 극지에서도
스마트팜을 통해 농사짓기가 가능하고,
기존 농사 대비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스마트팜과 농기자재를 포함한 농식품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18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팜 수출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온실 설비·기자재·데이터·인력 등이 포함된
플랜트형 특징을 가지고 있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국가에서
우리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 많은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UAE 순방을 계기로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현지 기업과
5천 6백만 불 규모의 MOU를 체결하면서
중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UAE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제2의 중동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건설과 스마트팜 업계가 꾸린
‘원팀 코리아’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많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직접 해외 현지에 나가
스마트팜을 시공·건설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업계가
경험 많은 해외 건설업계와 협력해 진출한다면
수주 규모 확대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양 업계 간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팜과 연계한 ESG 건설을

해외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활용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같이 식량 생태계를 조성하는
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하기까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해외 건설과 스마트팜 업계가 협력하여,
전 세계가 신뢰하는 K-브랜드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양 협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원팀(One Team)'이 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도 업계 간 협력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ODA 사업, 외교 채널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선정 시·군 농촌협약식

2023.4.26.

오늘은 농식품부와 21개 지자체가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맺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농촌 공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군수님과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협약은 농촌의 가치를 살리고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동반자'로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농촌다움’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좋은 일터, 삶터, 쉼터로서
도시와 농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려면 계획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농촌공간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구획화(zoning)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농촌의 난개발이 줄어들고
일자리와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되어,

현재 농촌 주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농촌의 성장을 이끌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제대로 시행하는 첫 단추입니다.

농촌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 특성을 살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시·군별 차별화된 계획이 수립·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주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과 지방,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원활히 소통해 주시고
기업 등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민간 분야와의 협업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성심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시장·군수님들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
그 강력한 실행수단이 될 것이며,
우리 농촌이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매헌 윤봉길의사 상해 의거 91주년 기념식

2023.4.29.

오늘은 매헌 윤봉길 의사께서
‘상하이 의거’를 단행하신 지 9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에 맞서 헌신한 윤봉길 의사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는 기념식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매헌 윤봉길 월진회’의 윤여두 회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님의 장손녀이신 윤주경 의원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윤봉길 의사님은 ‘상하이 의거’로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이전부터
일제강점기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선구자였습니다.

1927년, 불과 20대 초반 나이에 월진회를 조직해
식민 통치로 피폐해진 농촌을 부흥시키고자 했습니다.
‘농민독본’이라는 야학 교재를 직접 만들어 농민을 가르쳤고,
‘우리 조선은 농민의 나라’이고
‘농업은 생명 창고’임을 강조하시며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
농민이 주인 대접받는 세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농촌의 부흥을 농업 혁신에서 찾았던
의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농업의 틀을 바꾸는 농업 대전환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쌀값을 안정화하고 식량안보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의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직불금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농가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셋째, 농촌 혁신의 주역이 될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산업 등

농식품 분야의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지난달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통해
농촌을 살기 편하고, 전 국민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의 근간이 농업이라는
윤봉길 의사의 말씀을 되새기며,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2023.5.1.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맛 좋은 우리 축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주신
7개 의무축산자조금 위원장님,
특히 낙농진흥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서민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여러 축산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 축산물은 맛과 품질이 좋을 뿐 아니라
수입산에 비해 신선하고 안전합니다.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적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축산물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친 국민께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앞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축산물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먹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장보기도, 한 끼 외식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축산자조금위원회와 함께
전국에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구매하고,
축산농가는 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소득에 보탬이 되는,
그런 상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시민의 살림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고향과 농업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비가
산지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도 지속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축산물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한우 수출 물량을 200톤까지 늘리고,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 축산대전의 성공을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부-CJ제일제당 Cuisine.K 프로젝트 발족식

2023.5.2.

「Cuisine. K」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K-푸드 확산을 추진하는 릴레이 만남에,
첫 번째 주자로 CJ와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행사를 준비해주신
최은석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함께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 곳에만
미술랭 스타를 받은 한식당이 9곳에 달하는,
그야말로 ‘한식의 전성시대’입니다.

또 올해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도

한식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국’ 하면 K-POP 다음으로
‘한식’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한국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한식의 세계화는
우리 음식과 문화를
세계인이 즐기도록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국내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햇반과 비비고 만두 등 인기 상품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여러분의 성공 경험과 열정을 함께 나눈다면,
한식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 세계에 한식의 매력을 알리는
한식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K-푸드의 미래 주역인 청년 셰프를 육성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다양한 레시피와 콘텐츠를 개발해서
식재료 수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정부도 한식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식의 산업 가치를 끌어올려
세계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경 'K-푸드 글로벌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북촌의 한식문화공간 '이음'과 같은
한식 확산의 거점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과 식품명인, 향토 음식을 잇는
'K-미식벨트'도 내년부터 2032년까지 30곳 조성할 것입니다.

Young Chef를 발굴하는 업무협약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청년 셰프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키우고,
세계시장에서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푸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젊은 한식 셰프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더욱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CJ와 청년 셰프들께서 언제나 농업과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CJ의 「Cuisine.K」프로젝트 발족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개막식

2023.5.4.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님, 하승철 하동군수님,
또, 행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하영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차와 관련한 단체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곳 하동에서
차(茶)를 주제로 정부가 최초로 승인한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가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하동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우리의 유서 깊은 차(茶) 역사와
문화를 선보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곳으로,
1,200년의 전통을 지녔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하동 전통차 농업’이
지난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지리산이 품고,
섬진강이 키워낸 하동차는
우수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동차는
하동을 상징하는 대표 특화작목으로
지역 농업인의 중요한 소득원이자
군민의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차 산업은
커피와 수입차 등에 밀려 소비가 줄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행사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리 차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한국 차 산업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도 지자체, 민간기관과 함께 협력해
우리 차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차(茶)의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우리나라 차 역사관을 비롯해
하동의 전통 차밭을 활용해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다채로운 전시·체험·홍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茶)를 직접 보고, 느끼고, 즐기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가
우리 차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2023.7.7.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교류의 날’ 행사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국회 홍문표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님,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행사를 주관해주신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기업과 단체, 체험 마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열한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민이 식량안보 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농촌을 보다 나은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산 좋고 물 맑은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쉬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케이션(workation), 촌캉스(촌+바캉스) 등
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트렌드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촌을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생활을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농촌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지는 행사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재미있고 알차게
농촌 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농촌관광 체험관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농촌여행 상품과 추천 여행 코스 등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꼭 농촌으로 떠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촌의 다양한 멋과 가치를 발견하고
농촌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농협 창립 제62주년 기념식

2023.8.10.

농협 창립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굳건히 지켜 주신 220만 농업인과
농협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에 함께 해주신
홍문표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협 조합장님과 농업인 단체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성희 농협 회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태초의 산업이자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했다 해도

농촌은 일상에 지친 모두의 안식처이자
매력적인 삶터·일터·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의 위협,
농촌은 물론 지방 소멸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협은 지난 62년 동안,
농산물 유통, 농자재 공급, 영농지도는 물론,
금융 사업에서 창출한 수익을 농업 현장에 돌려줌으로써
농업인과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왔습니다.

전국 1,111개 조합, 209만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농협은
이제 매출액 세계 10위의 글로벌협동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이어가고,
앞으로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더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팜 보급과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인력 공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 스스로 더욱 엄격해지고
도시와 농촌, 조합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여름에 폭염과 폭우 피해로
우리 농업인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농협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3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밥쌀 공급 과잉과 수입 밀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의 생산·소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요 곡물의 비축은 물론,
해외 곡물 도입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직불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제고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체계적인 농촌공간계획법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농협이 힘을 합쳐
농업·농촌의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농협 창립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100년을 향한
농협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회 경상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

2023.8.16.

‘제17회 경상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하는데 애써주신
이학구 한농연 중앙연합회장님, 장진수 경상남도연합회장님,
강호용 진주시연합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강민국 의원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
조규일 진주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상을 받으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지난 36년 동안 한농연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합리적인 해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한 비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야말로
농정의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4만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식량안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까지 더해져서
농촌지역은 소멸의 위기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전락작물직불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kg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에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안전망도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침수지역 중심으로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저수지 물 그릇 키우기 등을 통해 사전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업혁신을 이끌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고,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펀드를 총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신산업이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135억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돕겠습니다.

넷째,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법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도시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경상남도 회원 여러분,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농촌을 매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러분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농식품부의 공직자들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더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농업·농촌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7회 경상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2023.9.13.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집중호우, 폭염,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어느해 보다도 컸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이숙원 한여농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허영 국회의원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장님, 육동한 춘천 시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한여농’은 1996년 설립 이후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활동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한여농’회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같은 실효성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농업인의 숙원사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내년 사업 규모도 금년 대비 3배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여농 회원과 내빈 여러분,

윤석열정부 농정은 쌀값 하락, 세계적 경기 침체,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과 같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지만, 도전적·창의적 자세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해묵은 농정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쌀값은 지난해 폭락 이후 대규모 과감한 시장격리,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도입의 효과로 인해서 지난 4월 정부가 약속한대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직불금과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 발생한 수해, 태풍에 대응하여 복구단가 현실화, 특별위로금 지원 등을 통해 재해복구비를 기존 보다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기계·시설물 피해도 처음으로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를 입어 정상재배가 어려운 논콩 농가에 대해서도 전략 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의 활력증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공간계획법’과 ‘농촌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하여 농촌에도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비료가격 차액지원, 시설농가 난방비 지원, 사료 구매자금 지원,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등을 지원했지만 농업 소득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농가 수입 등을 기반으로 가격 불안, 경영비 증가 등에 대응한 경영안정장치를 만들고, 디지털전환·푸드테크·그린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농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여농 회원과 내빈 여러분!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조금 넘지만, 존재의 의미는 이 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성 농업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여성농업인이 농업 농촌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농업인을 자립적·독립적 경영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창업 및 경영교육을 확대하여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들봄·교육·문화 등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작업 부담 경감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동경영주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책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높이겠습니다. 성인지적 정책 강화와 함께 성평등 인식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여농 회원과 내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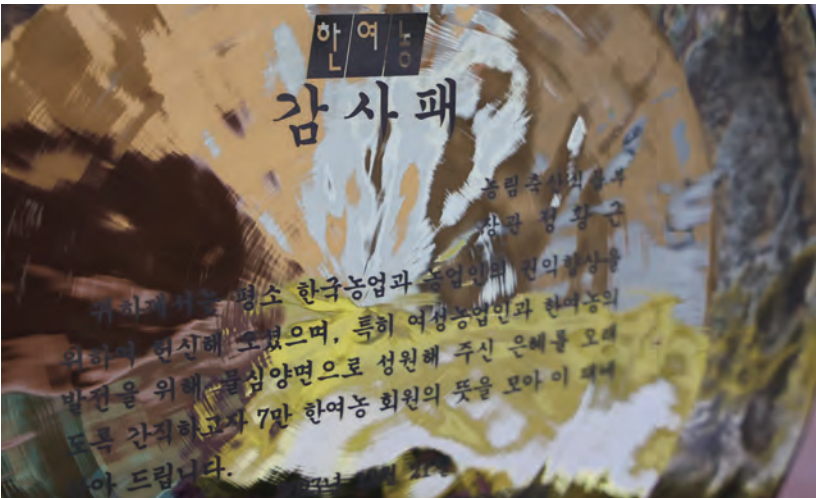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4년 농식품부 예산을 18조 3300억원으로 편성하여 역사상 최초로 18조 원을 넘었고,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두배나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예산도 최초로 3조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농업·농촌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 기간 중 항상 안전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

2023.9.19.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장승준 매일경제 신문 부회장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님, 허철호 KGC인삼공사 사장님,
박범인 금산군수님과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삼은 천년이 넘는 유구한 세월 동안
한국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서양에서 한국을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인삼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코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상품이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수출되며
세계인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해지고
소비 패턴도 변화하면서 수요가 줄고 있어
인삼산업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삼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인삼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인삼강국 코리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글로벌 인삼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삼산업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인삼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먼저, 인삼의 가치를 인정받고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혀가겠습니다.

인삼가공 신제품 개발과

흑삼과 같은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도 힘쓰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출국에 기능성식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신시장 개척을 돕겠습니다.

우리 인삼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삼산업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인삼 경작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관측 품목에 인삼을 포함해
수급 예측과 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조합의 추가 구매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가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인삼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2023.10.12.

2021년 ‘여성농업인의 날’이
첫 법정기념일이 되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은 ‘여성농업인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올해 집중호우, 태풍 등 엄청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7개 여성농업인 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서삼석 국회의원님,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숙원 회장님,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분들께 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농업·농촌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쌀값 하락, 세계적 경기 침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같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변화와

명확한 비전을 갖고

농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쌀값은

역대 최대 대규모의 시장격리,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이미 20만 원 선에 도달했습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1조 원가량 늘려

18조 3,3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두 배나 높은 것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예산도 처음으로 3조원을 초과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120만 여성농업인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내년 사업 규모도 올해보다 3배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과학화, 첨단화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뜨는 중요한 산업이
바로 농업입니다.

그 농업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농촌을 지킨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첫째, 여성농업인을 자립적·독립적 경영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창업과 경영교육을 확대해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교육·문화 분야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작업 부담 경감과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여러분은 정부의 정책 파트너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여러분의 노력을 최대한 성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한농연 창립 36주년 기념식

2023.10.12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이학구’ 한농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제가 한농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는데
기쁨과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 첫 농정 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매 순간 열과 성을 다해
세계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한농연은 1987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로 출범해 국내 최
대 농업인단체로 성장했으며,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시장 개방, 농축산물 수급 불안, 각종 재해 등

큰 고비마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농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농정이 국민의 식량 주권을 책임지고,
미래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준
14만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여러분!

농업은 지금,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농업농촌의 혁신을 위한 기회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고,
농촌은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정현안을 하나둘 해결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쌀값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와
가루쌀 산업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20만 원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도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1조 원가량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 3,3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넘게 반영하였고,
농업인들 걱정이 큰 재해 대비 예산도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통해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한 결과,
농식품 수출은 9월 말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어
우리 농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전국 14만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힘껏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든든하고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과 전략작물직불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시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습니다.

쌀의 과잉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쌀값을 안정시켜 농가소득도 올리겠습니다.

둘째,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촘촘히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와 범위를 현실화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배수시설 확충, 노후 저수지 보강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업직불금도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에는 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 30%를 스마트화해서
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농지, 자금, 교육, 주거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고,
농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법’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도시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여러분!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는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성장 지렛대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농연 회원 여러분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부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농업·농촌의 발전에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농연의 창립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및 K-seed 채용설명회

2023.11.15.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과
올해 처음으로 함께 열리는
케이 씨드(K-seed)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종자협회 ‘김창남’ 회장님,
연암대학교 ‘육근열’ 총장님을 비롯한
국립종자원과 농어촌희망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내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케이 씨드(K-seed) 채용설명회에 참가해 주신 종자 기업들과,
특강을 해주실 충북대학교 ‘유주경’ 교수님,
농우바이오 남부육종연구소 ‘이상직’ 소장님, 고맙습니다.
올해로 열아홉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종자 분야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며,
신품종 개발에 기여가 큰 육종가를 발굴해 왔습니다.

그동안 육종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1만3,000여 개의 신품종이 출원됐고,
등록 품종 수는 9,700여 개에 달해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수준의 종자 강국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종자 ‘케이 씨드(K-seed)’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종자 수출액은 약 6,0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육종가와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굶어도, 종자는 배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는 한 해 농사의 시작이자,
농업의 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위기가 커지면서
종자산업이 식량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축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종자 기업들은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육종기술로 경쟁력 높은 품종을 육성하는 등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종자 기업도 디지털 육종 기술을 도입하는 등 K-종자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종자산업의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을 지원해 기업의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육종’을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품종의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육종효율도 높은 경쟁력 있는 종자를 개발해 고부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품종 개발과 부가가치 확대에 필요한 산업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종자가공센터도 2026년까지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제품 개발 육종가, 고품질 종자 생산자 등
육종 분야의 유능한 인재 확보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K-디지털 육종, 종자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채용설명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오늘 행사에 오신 젊은 인재들이
종자산업 분야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종자, K-seed(케이 씨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대한민국 식품대전

2023.11.15.

‘2023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님,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님,
의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식품산업인 여러분,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656조 원으로

최근 들어 연평균(2018-2021) 8%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인은 라면, 떡볶이, 김밥 등 K-푸드에 열광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88억20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대체식품, 조리 로봇 등
국내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K-푸드테크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식품산업인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대한민국 식품대전의 주제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입니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첨단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농업과 푸드테크가 상생'하며 나아갈 미래를
한눈에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식품 등 새로운 식품 원료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농업법인은 스마트팩토리 등 푸드테크를

농업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식품 원료인 가루쌀은
빵, 과자 등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수입 밀 수요를 대체하고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식품산업의 성장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통해
우리 식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농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에는 식품·외식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도 3개소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식품대전이
푸드테크 기업에게는 투자와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 기업에게는 푸드테크를 통해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의 길을 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14회 외식산업인의 날

2023.11.15.

‘제14회 외식산업인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식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며
더 자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2023년 대한민국 식품대전’과 연계해,
‘외식 푸드테크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식품에 혁신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는
사람이 하는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을 덜 수 있고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며,
외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통해
우리 외식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농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푸드테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에는 식품·외식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도 3개소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제14회 외식산업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의 날

2023.11.22.

오늘, 오랜 시간 우리 밥상을 지켜온
한국인의 서울푸드, 김치를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 회장님,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2001년, ‘김치(Kimchi)’가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식품으로 등록되며 한국의 고유한 전통음식을 세계에 알
렸고,

2013년, 우리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김치 종주국이라는 큰 자부심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김치는 케이팝(K-pop)과 케이푸드(K-food)와 같은
한류 열풍을 계기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 분야에서 권위를 지닌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발표한 ‘2024년 세계 최고 100대 도시’ 중 서울은 10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서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김치’라고 합니다.

김치 수출 국가는 2011년 60개국에서 올해 93개국으로 늘었고,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해외 4개국 13개 지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할 만큼 김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김치가 대한민국의 전통 식품을 넘어 세계인의 음식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간 배추 등 작황이 좋지 않아 김치 제조업체, 생산 농업인, 소비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요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대파 등은 정부비축물량 1만 10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시중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 중입니다.

주재료인 배추·무는 생육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철 동안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치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대규모 ‘김치 원료 공급단지’ 2개소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개발한
37종의 우수한 김치 종균을 민간에 보급해
김치의 맛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김치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문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김장문화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김치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준 김치 종주국의 자부심이
우리 세대를 넘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2023.11.22.

올해 첫 회를 맞는

‘2023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코리아 푸드테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해는 그 규모를 더 키워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푸드테크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큼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푸드테크협회 이기원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통해

우리나라 푸드테크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고,

앞으로 농업과의 상생 기회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푸드테크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푸드테크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63억원 증가한 639억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융복합 인재 양성 등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년에는 식품·외식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도 3개소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오늘 논의되는 유익한 의견들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

2023.11.30.

농산물 유통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먼저, 뜻깊은 날을 함께 해주시는
홍문표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에 힘을 보태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준비에 애써주신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정부는 과거에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정가수의매매 제도 등 거래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함께
농산물 유통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관계자분들
정부와 관계 기관이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오늘,
세계 최초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합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농산물 유통의 판도를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새로운 출하처를 찾아 수취가격을 높이고,
구매자는 원하는 상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체결된 이후에
생산지의 상품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지로 직접 배송되므로 물류도 효율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온라인상에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4년 5천억 원에서 27년 3조 7천억 원 규모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 7천억 원을 절감하고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 전 과정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농산물 유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7년까지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100개소로 늘려
집하·선별·가공·출하 등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핵심 주체가 될
산지의 생산·유통 통합조직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화된 거래·유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농산물 유통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대한민국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전 세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 혁신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협약 체결식

2023.12.4.

정성을 다해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스타벅스의 손정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농가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그려가는 첫걸음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전문기업 스타벅스는
2016년 대한민국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음료를 개발하여
젊은 세대에게 상큼한 오미자의 맛을 널리 알렸습니다.

천년 역사를 지닌 ‘하동 녹차’는
스타벅스와 함께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품미를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식품·음료로 재탄생시켜
농업과 외식기업 간 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길을 가루쌀, 국산과일로 넓혀가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가루쌀은 쌀처럼 재배하지만 밀처럼 쓸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루텐프리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식품원료입니다.

정부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2천ha에서 내년 1만ha로 확대하여
스타벅스를 비롯한 식품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가정내 소비로 저변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음료기업의 주요 원료가 되는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초일류 글로벌 기업과 대한민국 농업이
튼튼한 동반자로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매우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외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국산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

2023.12.13.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시상식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높은 소득을 올리거나,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주위 농업인분들과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우수한 청년 농업인이 많이 발굴됐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차세대농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매년 행사를 준비해주시는
‘곽태현’ 서울신문사 사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애쓰신
‘임정빈’ 심사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농업에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은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수출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도 한우의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K-푸드가 전 세계 사랑을 받으면서
올해도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10개국과 체결한 K-라이스벨트를 통해
가나, 세네갈 등에서 우리 쌀이 기아 해결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농업에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성장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들어와서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돈 버는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4천 명으로 2배 늘리고,
지원 단가도 월 1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자금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부담도 줄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을 시행해 난개발을 막고,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농촌을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자신감을 갖고
농업·농촌에서 여러분이 가진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농업·농촌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정부도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면서,

하시든 모든 일마다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Food+ 수출탑 시상식

2023.12.19.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K-Food+ 수출탑' 시상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상 기업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이끈 주역으로
쉽 없이 뛰어오신 수출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무역의 역사는
1960년대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발과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늘면서
1964년에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하고,
70~80년대에는 선박과 철강, 자동차까지 수출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수출에 가세하면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농식품부도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매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농식품과 연관산업이 ‘제2의 수출 부흥’을
이끌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고,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월, 바로 이 자리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부장을 맡아 수출 최전선에서
성심을 다해 뛰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영상을 보니,
우리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해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은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수출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도 한우의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10개국과 체결한 K-라이스벨트를 통해
한국산 농기계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통농업에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성장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땀과 열정으로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출 관계자 여러분,

우리 농식품 분야 전체 수출액은
현재 112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면은 K-푸드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며
이미 8억 달러의 해외 매출을 넘어섰고,
올해 1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큼니다.

냉동 김밥, 즉석밥, 떡 등 쌀가공식품도
사상 최초로 수출 2억불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도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꾸준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은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원제를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확대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시장에서 우리 농식품과 연관산업의
수출 확대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정부도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 관계자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펼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이 신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바이어 매칭, 할랄 인증 취득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팜과 농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해외 국부펀드 투자 유치 등
맞춤형 수출지원도 추진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폐지되는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여러분께서도
K-Food+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66대 정황근 장관
연설문집 2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3년 12월 28일

디자인·편집 우리인사이트

※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힘차게 드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